

제22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2025년

유엔 세계 협동조합의 해, 협동조합에서 더불어 성장하기

일시 | 7.2.(화) 14:00~16:30

장소 |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



공동주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KS도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SVS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후원

행복나래

협찬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목차

2024 제22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진행순서

축사

국회의원 김태년·이학영·진선미·용혜인·서왕진·천하람	01
김미경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서울 은평구청장	13

기조발제

SDGs 지역화와 2025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	15
김형미 한국협동조합학회 회장	

주제발제

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가능성과 상상	33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장	
학교협동조합: 조합원, 학습과 교육을 통한 성장	42
장이수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생태계 이야기	51
박용수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토론

좌장: 김유숙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65
김선화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위원	73
서재교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 소장	76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79
김홍길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 과장	81

제22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진행순서

2025년 유엔 세계 협동조합의 해, 협동조합에서 더불어 성장하기

시간	구분	내용
14:00~14:10	축사	<p>김태년·이학영·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p> <p>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p> <p>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p> <p>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p> <p>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p>
14:10~14:35	기조발제	<p>유엔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가 갖는 의미</p> <p>SDGs 지역화와 2025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 한국협동조합운동과 정부에 드리는 제언</p> <p>김형미 한국협동조합학회 회장</p>
14:35~14:50	주제발제1	<p>디지털 역량 강화 통한 성장</p> <p>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가능성과 상상</p> <p>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장</p>
14:50~15:05	주제발제2	<p>학습과 교육 통한 성장</p> <p>학교 협동조합: 조합원, 학습과 교육을 통한 성장</p> <p>장이수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p>
15:05~15:20	주제발제3	<p>호혜와 연대를 통한 공동 성장</p> <p>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생태계 이야기</p> <p>박용수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p>
15:20~15:30		휴식
15:30~16:30	토론	<p>좌장 김유숙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p> <p>토론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p> <p>김선화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위원</p> <p>서재교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 소장</p> <p>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p> <p>김홍길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장</p>

축 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김미경 서울은평구청장·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축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김태년입니다.

〈제22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하신 사회적경제 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와 행사의 후원을 맡아주신 행복나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

미국의 대표적 사회적기업인 '루비콘 베이커리'의 슬로건입니다. '빵'은 모두에게 일자리이고, 먹거리이고, 꿈입니다. 이익과 이윤보다 꿈과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만들고 닦는 것이 바로 사회적경제입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뿌리내린 사회적경제는 최근 코로나19로 심화된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경제를 중요한 축으로 삼아서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비중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 속에 불평등과 양극화, 기후 위기 등의 문제에 사회적경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의 성장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이 우리 경제에 뿌리내리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가올 2025년은 세계협동조합의 해입니다. 오늘 정책포럼이 사회적경제가 더 탄탄하고 더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22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일
국회의원 김태년

축사



이학영 국회 부의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부의장 이학영입니다.

제22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미 있는 포럼을 주관해주신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수는 2024년 기준 2만 3,892개에 달하며, 조합원은 62만 2,41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꾸준한 성장과 적극적인 지역사회 공헌은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가치와 재화의 나눔,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우리 사회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활성화, 고용창출 그리고 사회적 연대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람 중심', '더불어 사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협동조합이 생

겨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25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앞두고 2024년도 예산을 전년도 대비 79.0% 삭감하며, 협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예산도 삭감해 사회적 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같은 상황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멈춘 상태에서 협동조합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지역사회와 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만들고, 성장하기 위한 학습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인 ‘협동조합에서 더불어 성장하기’가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의미가 깊고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이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람 중심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 부의장으로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더불어 사는 삶을 만들기 위해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일
국회 부의장 이학영

축사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2025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 협동조합에서 더불어 성장하기’를 주제로 제22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을 주관해 주신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와 후원을 해 주신 행복나래에 감사드립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김형미 회장님과 권오현 이사장님, 장이수 상임이사님, 박용수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김홍길 과장님, 서재교 소장님, 안인숙 회장님, 김선화 위원님, 김대훈 사무총장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김유숙 상임이사님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개별법 이외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게 되어 2.3만개의 협동조합에서 50만명이 넘는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협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수가 늘어나는 등 물리적인 부분이 확대되는 속도를 협동조합의 영세성 및 설립 후 운영을 못 하는 것 등 질적 성장 속도가 높아지기 어려운 문제 등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확대하기는커녕 기획재정부의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통·폐합 하여 지속가능경제과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2024년 예산 편성 시 협동조합 관련 예산을 79% 삭감하였습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는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으로 확인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 등의 역할 확대를 외면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을 축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국제기구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제73차 유엔총회에서는 2025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1년 앞두고, 디지털 역량강화, 조합원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협동조합에서 더불어 성장하는 내용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 것이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연대하여 이 시기를 버텨낸다면, 협동조합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정책포럼이 많은 분들이 더욱 힘을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국회에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일
국회의원 진선미

축사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제22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포럼을 준비하신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 행복나래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11월 열린 제78차 유엔 총회에서 2025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2012년에 이어 13년 만에 다시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지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였던 2012년, 한국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협동조합의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3년 만에 UN이 다시 ‘협동조합의 해’를 지정한 것은 이 위기의 시대에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

적경제 역할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UN은 작년 4월 77차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하여 사회적경제가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건강과 복지, 성평등 증진,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 계층 권익 향상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UN뿐 아니라 ILO,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재정 투입, 공공조달 확대, 금융서비스와 자금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15년 넘게 이어오던 정책을 없애버렸습니다. 국제사회 흐름과 정반대로 가는 정부, 우리 사회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부가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발표문을 보니 희망이 느껴집니다. 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다양한 가능성과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사회적경제 현장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고군분투, 아니 ‘협동분투’ 하시는 사회적경제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협동조합의 해’가 양적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면, 두 번째 ‘협동조합의 해’는 질적 성숙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기본소득당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일
국회의원 용혜인

축사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서왕진입니다.

2023년 11월 3일 제78차 유엔총회에서는 2025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발전에서의 협동조합’(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이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한 이후 13년만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빈부격차, 고용불안,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중심인 사회적경제는 이윤 극대화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회적경제계는 예산 삭감과 정책 후퇴로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올해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은 2023년 약 1조1천억 원에서 약 4천8백억 원으로 56%가량 삭감됐습니다. 국가 예산에서 사회적경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0.07%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수치가 증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육성되어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는 태생적으로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영리기업이 외면하거나 국가가 살피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민간의 혁신역량으로 해결해 온 것이 전통입니다.

사회적경제가 자생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22대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를 갖는 이유일 것입니다. 법률 제정은 국회의원 몇 명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경제계를 중심으로 한 공론화와 국회 입법 논의 가속화를 두 축으로 세기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새롭게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재도약에 필요한 입법,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를 전합니다.

2025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기념하며, 오늘 토론회가 협동조합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을 정립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일
국회의원 서왕진

축사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입니다.

제22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가오는 2025년이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된 것을 기념하여, 협동조합 내·외부의 학습과 연대를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이번 포럼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라 믿습니다.

사회적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은 작은 단위의 조직이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입니다. 더불어, 협동조합은 기존의 기업과 달리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 젊은 청년층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는 이제 막 시작된 여정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이미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와 도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포럼을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포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일
국회의원 천하람

축사



김미경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서울 은평구청장

사회적 경제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자 은평구청장 김미경입니다.

‘제22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부터 포럼의 궤적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관계가 파편화된 세상입니다. 양극화된 세상입니다. 다수에 의해 소수가 지워지는 세상입니다. 우리네 사회는 열기설기 얽혀있는 위기 속에서 갈피를 잃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좌절할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회적 경제라는 대안이 있으니 말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바보같이, 그리고 한결같이 연대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흩어진 관계를 공동체로 묶고, 양극화에도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위해 고민하고, 다수에 의해 주목받지 못하는 소외받는 이웃들을 돌봅니다. 사회적 경제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적 경제를 사랑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은평에도 사회적 기업, 특히 협동조합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합심하여 직접 의원, 치과, 한의원, 돌봄 기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함께한 시간은 10여 년이 되었고, 이용하는 주민이 매해 5만여 명이 됩니다. 사회적 경제가 만들어 내는 하모니를 체감한 사람으로서, 지역을 이끄는 한 명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은 ‘세계협동조합의 해’입니다. 지난해 UN은 사회연대경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사회적 경제의 실천을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천명하였습니다. 다시금 맞이하게 될 ‘세계협동조합의 해’는 사회적 경제 조직 모두의 전성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 완숙을 이뤄내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한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해 주시어 포럼의 의미를 더해주시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김태년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용혜인 의원님, 서왕진 의원님, 천하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발제를 진행 해주실 연사님들과 토론을 이끌어주실 좌장, 패널 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매년 뜻깊은 공론의 장을 마련해 오신 한겨레신문사 최우성 사장님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이봉현 원장님, 그리고 한겨레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특별한 감사를 전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선 한 마음입니다. 제22대 국회가 어느 때보다 큰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저희 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도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손 붙잡고 걸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현장에서 더욱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의 시대입니다.

2024년 7월 2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서울 은평구청장 김미경

기조발제

SDGs 지역화와 2025년 세계협동조합의 해

김형미 한국협동조합학회 회장

SDGs 지역화와 2025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 - 한국협동조합운동과 정부에 드리는 제안 -

김형미 (사단법인 한국협동조합학회 회장)

1. 2025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세계 협동조합의 해’: UN의 선포목적과 권고 사항

- 2023년 11월 3일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회기 제3 위원회(사회, 인도주의 및 문화 주제) 심의 의제로서 몽골 정부 대표는 「사회발전에 있어서 협동조합」 결의안을 제안. 이 제안은 78개국에서 공동발의, 심의 현장에서 12개국이 찬성, 반대토론 없이 채택됨
- 본 결의문(resolution on 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은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LPF)에 협동조합이 참여하여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협동조합의 창업 생태계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일다운 일(decent work)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의 공헌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로서 2025년을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할 것을 제안¹⁾
- 이로써 2025년은 또다시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되어 국제적으로 협동조합운동에게 기념할만한 특별한 시간이 주어짐

1) UN Web TV, Third Committee, 47th plenary meeting, General Assembly, <https://webtv.un.org/en/asset/k1r/k1rj26appi?fbclid=IwAR0nT2ihIle77BqiKLELqg7ZXLdaSoxhv1fVGjexVQjbdOOwu0bJ1rZX64M>, 녹화영상 중 25:40-32:02 사이 의사진행에 해당함

(참고 1) UN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LPF) <https://hlpf.un.org/>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속한 UN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은 2012년 리우+20회의에서 창설되었다.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가 채택한 「우리 세계의 전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하, 2030 의제)의 이행을 점검하는 최고 수준의 글로벌 플랫폼의 위상을 지닌다.

2030 의제 79번째 단락에 따르면, 회원국은 자국의 상황, 정책 및 SDGs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국가 주도로 SDGs 이행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를 하도록 요구되며 이에 유엔은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VNRs)'를 통해 각국이 HLPF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HLPF는 매년 8월 동안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주최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 중 3일은 각국 정부 장관급 회담으로, 4년마다 이틀간 유엔총회 차원에서 국가원수급의 회의를 개최한다. 2019년 HLPF는 제1차 <SDGs 정상회의>를 개최, 2023년 제2차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2024년 HLPF는 7월 8~12일에 ECOSOC 후원하에 개최되며 7월 15~18일에는 장관급회의가 개최된다.

- 한편, 2023년 4월 18일 제77차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촉진(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결의가 채택됨. 본 결의는 유엔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정의를 명시했다는 점과, “사회연대경제가 고용과 일다운 일, 건강 및 복지, 교육과 기술훈련 등 사회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경제 실천을 촉진함으로써 SDGs 달성과 현지화(localization)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힘
- 유엔의 사회연대경제 결의문과 2025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 선포목적은, 회원국에서 ‘2030 의제 실현=SDGs 달성’을 더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것임

2. SDGs와 협동조합의 관계성, 역할

- 국제사회가 협동조합의 역할에 주목한 배경에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2030 의제’ 채택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했으며 채택 후에도 SDGs 실현에 앞장서서 실천하고 캠페인을 펼쳐 온 발자취가 있었음. ‘2030 의제’ 설정 과정은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때와는

달리 개방적이었고 대부분 국가가 논의과정에 참여적이었으며 웹사이트에 일반 시민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고 공개작업반을 설치하여 최대한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설계했음²⁾

- (2030 의제 채택 이전) ICA는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경제사회이사국(UNDESA), 세계식량기구(FAO), 국제무역센터(ITC),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와 함께 ‘협동조합촉진위원회(COPAC)’를 결성하여 협동조합 인식증진, 협동조합 역량개발, 협동조합 정책개발 분야에서 공동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빈곤 감축, 양성평등,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건강, 식량안보와 좋은 영양, 물·위생 접근, 지속가능에너지, 일자리 창출 및 살림과 공정한 성장,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굿 거버넌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사회 추진, 환경과 장기금융 의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활약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유엔이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을 인정해야 함을 주창함.³⁾ 이를 반영하여 ‘2030 의제’ 본문에서 협동조합을 실행 주체로서 중요한 파트너로 언급하고 있음(41번째 단락· 67번째 단락)

-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2년 ICA 도쿄 총회에서 「급변하는 세상에서의 협동조합 가치(Cooperative Values in a Changing World)」, 「협동조합과 지속가능한 인간발전(Co-operatives and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보고서가 채택되었는데 후자는 리우회의의 영향을 반영한 것임. 또한, 매년 기념하는 ‘협동조합의 날’은 ICA가 1923년에 처음 기념했는데, 유엔 차원에서도 1995년 채택하여 그해 7월 1일 (토), 세계는 유엔이 제정한 첫 번째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하였음

- 2013년 4월 총회에서 채택된 ICA 규약 제1조에 따르면, ICA 목적 중에 “지속가능한 인간발전 및 더 나아가 보통 사람의 경제사회적 진보를 촉진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안전에 기여”함이 포함됨⁴⁾

2) 우창빈·김태균·김보경(2020).

3) ILO/ICA (2014), 이경수(역) (2014).

4) [Bylaws I.C.A., A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April 11, 2013.

- 2020년 1월 ICA가 발표한 제2차 블루 프린트 「2020-2030 전략계획: 두 번째 협동조합 시대를 위한 사람 중심의 길(A People-Centered Path for Second Cooperative Decade: 2020-2030 Strategic Plan)」은 다음 4개의 핵심 주제를 제시함
 - A. 협동조합 정체성의 촉진, B. 협동조합운동의 성장, C.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D.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에 공헌
 - (B) 협동조합의 성장: 성장 그 자체가 아니라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성장이라고 정의. 협동조합은 창업가적인 실재를 기업가적 실재의 내발적 성장에의 방법을 찾아야 하고, 협동조합 운동이 조합원의 사회, 경제적 웰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UN 2030 의제와 SDGs를 주요 정책 이슈에서 우선적으로 두어야 한다고 밝힘
 - (D) SDGs 기여에 대한 협동조합의 보고가 필요. 연차보고서에서 해당 협동조합의 주요사업이 SDGs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보고하고,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힘
- ICA는 2023년에 「협동조합: 2030지속가능발전의제의 핵심 파트너」라는 포지션 페이퍼를 공표함. 여기서, 협동조합기업의 핵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설정하고 있다고도 표현함. ICA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사업 목표는 조합원과 커뮤니티의 필요와 바람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으며 협동조합의 사업모델은 윤리적 가치와 원칙에 근거한다. 특히, 협동조합 기업은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승인한 정책을 통해서 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여’한다고 천명한 협동조합 제7원칙 실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함⁵⁾
- 또한, 협동조합운동은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지정을 받음. 이는, 독일의 라이파이젠연맹이 제출하여 2016년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 이익을 조직화하려는 구상과 실천(idea and practice of organizing shared interests in cooperatives)’임

5) ICA(2023), p.2.

(그림 1) 세계무형유산 등재 요약 (출처: 한국유네스코 위원회)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 이익을 조직화하려는 구상과 실천



- 제목: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 이익을 조직화하려는 구상과 실천
- 설명: © cine plus Leipzig GmbH 2015

상세정보

- ✓ 목록: 대표목록
- ✓ 국가: 독일(Germany)
- ✓ 등재연도: 2016년

요약

‘협동조합(Genossenschaften)’이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공동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경제적 번영을 이끌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회·문화·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연합체이다. 국가 행위보다 개인의 책임이 우선한다는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y principle)’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고용 창출과 노인 지원에서부터 도시 재생 사업과 재생 에너지 사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회적 문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조직으로서,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에 의해 설립된다.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은 조합의 지분을 취득하고 조합이 나아갈 방향에 관해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을 가진다. 이 체도를 통해서 농부와 강인, 기업가들은 저리로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오늘날 독일 전체 인구의 약 1/4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농민과 공매가 외에도 제빵사와 정육업자의 90%, 소매상인의 75%가 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다. 협동조합 가운데 어떤 것은 학생들이 협동조합에 대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설립된 것도 있다. 이 무형유산의 지식 및 기술은 협동조합과 대학교, 독일 협동조합과 라이파이젠 협회(German Cooperative and Raiffeisen Confederation), 독일 협동조합 아카데미(Akademie Deutscher Genossenschaften), 독일 헤르만 슐체 델리치 협회(German Hermann-Schulze-Delitzsch Society), 독일 프리드리히 빌헬름 라이파이젠 협회(German Friedrich-Wilhelm-Raiffeisen Society) 등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 이익을 조직화하려는 구상과 실천’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설명문

협동조합은 공동체에 기초한 단체로서 조합원들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함께 협력한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명 이상이 필요하다. 정관에서 정한 협동조합의 목적은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이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조(self-help)와 자기 책임(self-responsibility), 자치 운영(self-administration)의 원칙 그리고 믿음과 신뢰의 원칙은 모든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이다. 협동조합은 민주적인 원리에 기초하며 일반적인 생활 여건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협동조합은 시민 자조의 모델이다.

협동조합은 사회적·정치적·종교적·인종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최초로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한 사람은 본래 영국 웨일스 출신의 로버트 오언(Robert Owen, 1771~1858)이었다. 그렇지만 선구자적인 초기 모델은 그보다 더 이른 중세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독일에서는 19세기 경제 불황기에 헤르만 슐체 델리치(Hermann-Schulze-Delitzsch, 1808~1883)와 프리드리히 빌헬름 라이파이젠(Friedrich Wilhelm Raiffeisen, 1818~1888)이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구체화되었다. 이 두 사람은 농부와 공예인들이 저금리로 용자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공동 사업 운영을 추구하는 비영리 금융조합을 설립했다. 협동조합의 아이디어는 오늘날 독일 전역에 널리 전파되어 있다. 노동과 금융, 식품영양 또는 주거 등과 같이 삶의 다양한 부문에서 적용되고 있다. 협동조합을 실천하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향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약속을 의미한다. 오늘날, 실천 연대인 협동조합은 독일 사회에서 구조적 요소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협동조합 내에서 사회적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의 목표는 개인적 책임을 다하고 조합원의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다.

- 이러한 인식은, '2030 의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협동조합이 공동의 목표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약속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기능한다는 보편적인 인식을 조성하는데 기여함
- 결론적으로, 유엔은 SDGs 달성의 중요한 주체로서 협동조합에 기대하고 있으며, 국제협동조합운동을 대표하는 유일한 네트워크인 ICA도 이를 협동조합 사업 속에 내재화하고 인식증진 및 관련 사업(Coops for 2030 캠페인, 2016년)을 추진했음(그림2). 즉, SDGs 없이 UN 사회연대경제결의, 세계 협동조합의 해 선포는 없음

(그림 2) ICA 의 Coops for 2030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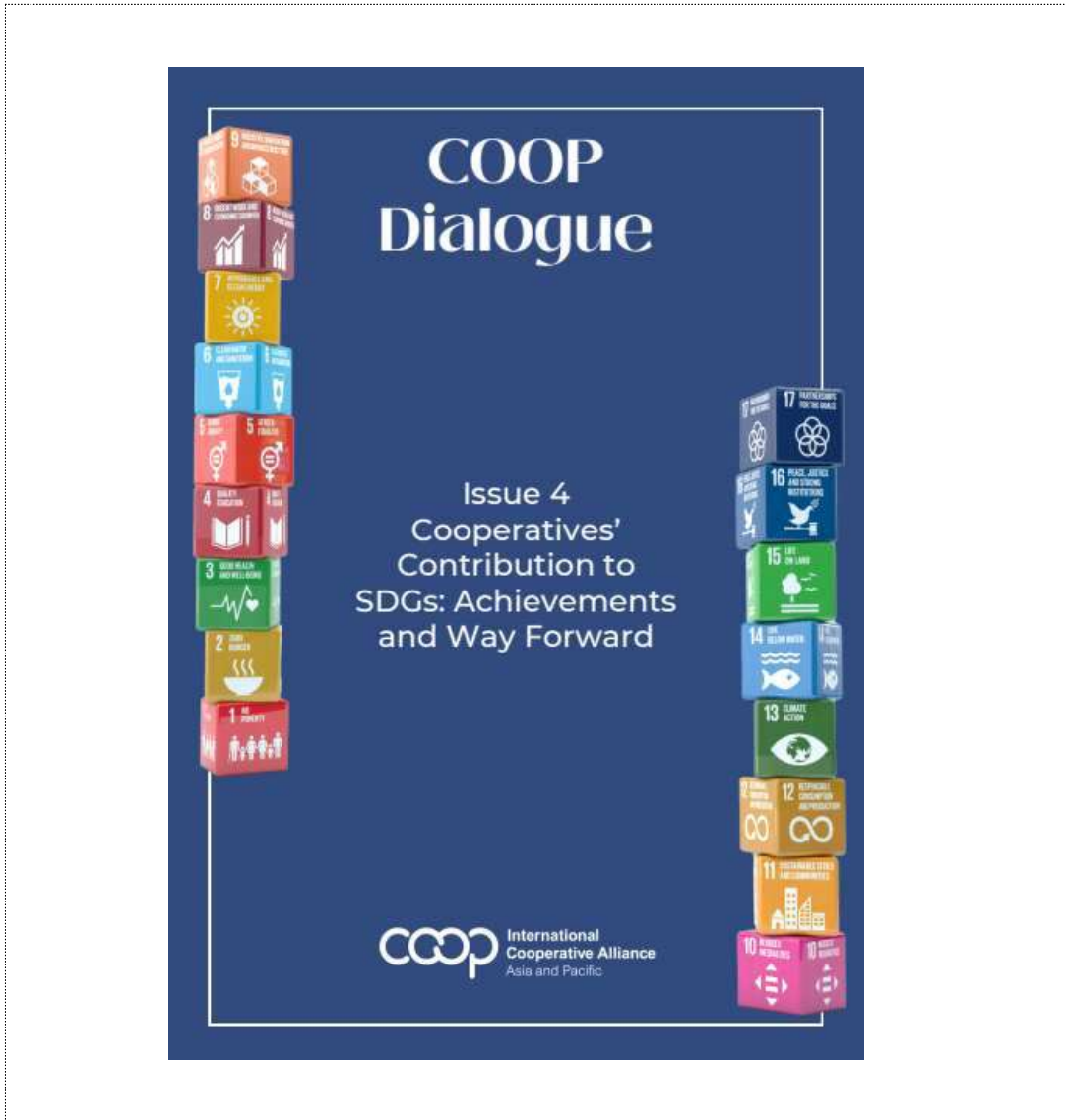


(출처) [Coops for 2030 campaign by ICA](#),

3. SDGs 달성을 위한 협동조합의 실천: ICA-AP 사례를 중심으로

- 국제협동조합연맹 아시아태평양지부(ICA-AP)는 29개국에서 107 회원이 가입하여 ICA 지부 중 가장 회원이 많으며, 회원 수의 35.8%를 차지함. ICA-AP는 2023년 「협동조합의 SDGs에의 기여: 성취와 향후 방향」 보고서를 발간함(그림3)

(그림 3) ICA-AP 보고서 「협동조합의 SDGs에의 기여: 성취와 향후 방향」



- 이 보고서에서 B. Iyer ICA-AP 사무총장은, “협동조합은 2030 의제 실행을 향해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국가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2023년이 ‘2030 의제’ 실천의 중간지점에 해당하여 지난 7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협동조합의 SDGs 달성을 위한 실천에 대해 정리함
- 이 보고서는 SDGs 달성을 위한 각 협동조합의 약속을 소개하는데 <표 1>과 같음

〈표 1〉 2030의제 실행에 대한 협동조합들의 약속

조합명	개요	약속
CBH Group (호주)	1933년 설립된 서호주지역의 곡물생산자협동조합, 조합원 3500명	협동조합 활동에 의한 생물다양성 소실을 최소화하거나 상쇄함으로써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함 (지표-생물다양성순이익 ⁶⁾)
JCCU (일본)	일본생협연합회는 1951년 설립, 전국 306개 생협/조합원 3041만 명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3년 대비 40% 감축
NCUI (인도)	1929년 설립, 인도 협동조합들의 중앙회로 2300여 만 조합원	대안 사업모델로서 협동조합 연합의 촉진, 발전, 지원/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과 청년의 역량강화
ESDC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경제사회개발센터는 2003년 비영리조직으로 등기된 전국협동조합네트워크	협동조합의 서비스 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소농의 적응능력과 회복력을 강화, 협동조합의 생산, 비즈니스, 기관운영 역량 구축
ACCU (아시아)	아시아신협협의회는 1971년 서울에서 창립, 22개국에서 4만5000여 신협, 4천만 조합원이 가입	2030년까지 2000만 빈곤층 및 금융소외층에 적정 금융 서비스를 제공

(출처) Shivali Sarna(2023), Cooperatives as Champ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OOP Dialogue Issue 4*, pp.11-19.

- (이 보고서의 문제의식) 2023년은 2030 의제의 중간지점. ICA-AP에서는 협동조합의 7년간 실천에 대해 정리함. 각국은 SDGs 실행에 대한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s: VNRs)를 작성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의 활동이 각 나라의 SDGs 달성을 향한 행동계획과 같은 방향에서 정렬되고 있음을 VNRs에서 보여주어야 한다고 권고함

3-1.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VNRs)와 협동조합의 SDGs 기여

-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VNRs)는 무엇인가
 - UN은 각 회원국이 SDGs의 국내 이행을 위한 각 정부의 계획 및 이행방안에 관한 보고서(VNR)를 HLPF에 4년에 한 차례씩 제출할 것을 권고했음.

6) 생물다양성순이익(Biodiversity net gain:BNG)는 주택지, 상업지 개발 시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개발 전보다도 더 나은 상태로 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반대 개념은 Biodiversity net loss(BNL). 영국은 2021년 환경법을 개정하여 2024년 2월 2일부터는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규모 개발계획 시에 최소 10%의 생물다양성 순이익이 발생하도록 했다. 동년 4월 2일부터는 소규모 개발계획 허가 시에도 이러한 요건을 적용한다. (출처: 지현영, 『법률신문』, 2024.3.31)

VNR은 각 국가의 국내 SDGs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이행전략과 추진체계를 UN에 보고하는 SDGs와 관련해서 국가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이자 가장 공신력이 있는 자료이며, ‘2030 의제’의 실행을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고자 함(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9)⁷⁾

- VNRs는 각국이 SDGs를 실행하는 과정에 대한 자발적인 평가(assessment)임. ‘2030 의제’의 84번째 단락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정기적인 보고는 자발적이며, 국가가 주도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착수한다”이며 이행보고서의 목표는 “성공, 도전과제 및 교훈을 포함한 경험 공유를 촉진할 뿐 아니라 시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함((Fukuda-Parr et al, 2018)⁸⁾
- 또한, VNRs 작성과정은 “개방적이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참여적이어야 하고 인권과 가장 먼 뒤에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과 엄밀하고 증거기반이어야 한다.”(2030 의제 74번째 단락). 이행보고서 및 후속작업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나 수직적인 일관성과 이행보고서 작성과정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권역 정부가 지역 차원에서 그 역량과 관여를 보여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⁹⁾
- 이VNRs 제출의 첫 번째 회기는 2016~2019년이었고 두 번째 회기(Cycle 2)는 2020~2023년, 세 번째 회기는 2024~27년임. HLPF 플랫폼에 설치된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 플랫폼(<https://hlpf.un.org/countries>)에 따르면, 한국은 첫 번째 회기인 2016년에 제출.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21년에 보고서를 제출함(글로벌 지표의 53% 수용)¹⁰⁾

○ VNRs에서 협동조합의 기여를 언급한 아시아태평양 나라들¹¹⁾

- 「협동조합의 SDGs에의 기여: 성취와 향후 방향」 보고서(ICA-AP, 2023)는 2016~22년 동안 VNRs 플랫폼에 게재된 아태지역 나라들의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를 조사함. 동 기간, 아태지역 28개국이 VNR를 작성했음. 이들

7) 우창빈·김태균·김보경(2020).

8) Singh, S., Singh, D., Dave, M. and Iyer, B.(2020) 에서 재인용.

9) 앞 논문.

10)이에 대한 분석은, 최규빈·홍제환(2021)을 참조.

11) Iyer, B., Mohit Dave, M. and Singh, S.(2023), The Role of Cooperatives i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sights from Voluntary National Reviews, *Coop Dialogue Issue 4*, pp. 3-6.

나라에는 모두 ICA 회원이 존재하는데, 28개국 중 15개국(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요르단, 키리바티, 키르기스공화국, 말레이시아, 네팔, 뉴질랜드, 팔레스타인,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동티모르, 바누아투)에서 SDGs 달성을 위한 협동조합의 실천, 기여를 포함하고 있음

- 협동조합의 기여는 주로 SDGs 1(빈곤 퇴치), 2(기아 종식), 13(기후행동)¹²⁾에서 언급됨. SDGs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은, 정부가 협동조합에 대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생산적인 고용, 일다운 일을 협동조합에 기대하고 있는 분야임
- 아태지역에서 최근 3년(2020-22년) 동안 VNRs를 제출한 나라는 17개국임. 이 중 협동조합의 기여를 언급한 보고서는 11개 나라(부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요르단, 키르기스공화국,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타이)임
- 2021년 인도네시아의 VNR은 SDGs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목표와 관련해서 “기업가역량, 소기업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강화는 국가 차원에서 4대 우선순위 프로그램”이라고 언급.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에서 회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협동조합과 소기업, 중소기업에의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펼침
- 2021년 일본의 VNR은 일본생협연합회의 <생협의 SDGs 행동선언>과, SDGs 12(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에 대한 기여를 모범사례로 기재함

12) SDGs 17개 목표 우리말 표현은 [‘ODA 청소년’](#) 에 따름

(그림) 일본생협연합회(JCCU)의 SDGs 행동선언

第68回日本生協連通常総会・特別アピール

コープSDGs行動宣言

私たち生協は、SDGs(持続可能な開発目標)に貢献することを約束(コミット)します。

私たちは、「生協の21世紀理念(1997年総会決定)」のもと、助け合いの精神として、誰もが笑顔でくらすことができ、持続可能な社会の実現をめざし、様々な取り組みを進めてきました。誰も取り残さないというSDGsのめざすものは、協同組合の理念と重なり合っています。私たちは、あらためて持続可能な社会の実現に向けて取り組むことを、[SDGs行動宣言]としてまとめました。私たちは、以下の7つの取り組みをうけて、世界の人々とともにSDGsを実現していきます。

持続可能な生産と消費のために、商品とくらしのあり方を見直していきます

私たちは、「つくる責任」と「つかう責任」の両面を視野に、持続可能な社会づくりをめざし、国内の人や、そして降りたる地球資源への思いをよき、商品の開発と供給を進めます。宇宙活動を通じて、エネルギー消費や持続可能な社会に関する理解を促進し、私たちからの消費行動や商品のあり方を見直していきます。

【関連するSDGsの主な目標】
目標12(持続可能な消費と生産)
持続可能な生産消費の促進。

【関連するSDGsの目標】
目標12(持続可能な消費と生産)

地球温暖化対策を推進し、再生可能エネルギーを積極・普及します

私たちは、地球の持続可能性を脅かす気候変動の脅威に対して、徹底的な省エネルギー削減目標(2030年削減目標)を掲げ、省エネルギーと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導入に積極的に取り組みます。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電源開発や電源利用拡大の先を拓き、原子力発電に頼りすぎないエネルギー政策への転換をめざします。

【関連するSDGsの主な目標】
目標13(気候変動)
気候変動の脅威を軽減するための緊急対策を講ずる。

【関連するSDGsの目標】
目標7(エネルギー)
安全かつ信頼できる持続可能な低炭素エネルギーへのアクセスを確保する。

健康づくりの取り組みを広げ、福祉事業・助け合い活動を進めます

私たちは、食生活、運動、社会参加の両面から健康づくりを進めます。安全・安心(およびより)より健康な食生活に向けた商品開発や組合員活動を推進します。生活習慣病や介護予防など「予防」を重視し、福祉事業や助け合い活動を広げ、自治体や隣近所と連携し、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のネットワークに貢献します。

【関連するSDGsの主な目標】
目標3(健康)
多くの国民がすべての人の健康と長寿な生活を達成し、暮らしを支えます。

【関連するSDGsの目標】
目標3(健康)

世界から銃弾や貧困をなくし、子どもたちを支援する活動を推進します

私たちは、誰一人取り残さない世界をめざし、世界が抱える問題についての理解を深め、助け合いの精神を貫き、ユニセフ基金などに取り組み、世界の子どもたちを支援します。「貧困」の撲滅をめざすために、子どもの権利について学び、話し合う活動を広げ、子ども権利やワーク・アウト・オブ・タイプなどの取り組みを進めます。

【関連するSDGsの主な目標】
目標16(平和と公正)
あらゆる形態の暴力と不正義の根絶を促す。

【関連するSDGsの目標】
目標5(ジェンダー平等)

誰もが安心してくらし続けられる社会づくりに参加します

私たちは、誰一人取り残さず、安心してくらし続けられる地域社会づくりに参加します。自治体や隣近所との連携を大切にしつつ、地域力員守り、専業協同組合の発展、生協の事業や活動のインフラを活用し、地域における役割を担います。

【関連するSDGsの主な目標】
目標11(持続可能な都市)

【関連するSDGsの目標】
目標11(持続可能な都市)

ジェンダー平等(男女平等)と多様な人々が共生できる社会づくりを推進します

私たちは、各地における活動を通じて、社会のジェンダー平等と多様な人々が共生できる社会の実現に貢献します。女性も男性も、誰もが元気に、生きがいを持って働き続けられる社会づくりを進めます。

【関連するSDGsの主な目標】
目標5(ジェンダー平等)

【関連するSDGsの目標】
目標5(ジェンダー平等)

核兵器廃絶と世界平和の実現をめざす活動を推進します

私たちは、「核なき世界」の実現のために、世界の人々と手を携えて、核兵器を廃絶し、平和な社会をめざす取り組みを進めます。私たちは、次の世代に継承・継承を継承し、日本国憲法の基本原則である平和主義のもと世界平和の実現に積極的に貢献します。

【関連するSDGsの主な目標】
目標16(平和)

【関連するSDGsの目標】
目標16(平和)

(출처) JCCU 웹사이트

- 이에 ICA-AP 본부는 회원 조직들에게 국가의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VNR)에 협동조합의 기여를 명시하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함
- 가. VNR의 진행여건, 일정, 요구사항을 이해할 것
- 나. VNR 준비 과정에서 담당 인물, 부서와 접촉할 것
- 다. 담당 인물, 부서에게 SDGs와 협동조합 역할을 제출할 것
- 라. SDGs 관련한 활동에 대해 협동조합에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의 장·차관 라인과 조율할 것
- 마. VNR 자문 과정과 시민사회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 바. (국제적인) 중요 문서에서 협동조합과 포용에 관한 홍보·제언(애드보커시)을 위하여 UN 기구와 국제기구에 접촉할 것
- 사. 자문과정의 후속 작업 및 협동조합이 수행한 활동에 대해 소통할 것

○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에 협동조합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¹³⁾

- VNRs은 글로벌 차원에서 공유되는 공식적이며 정치적인 문서로서 이 보고

13) Singh, S., Singh, D., Dave, M. amd Iyer, B.(2020).

서에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은 단순히 보고 이상의 의미를 지님. 개발 의제에서 협동조합을 하나의 축으로써 명시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옴. 특히, 협동조합이 대규모 네트워크 속에서 SDGs 달성과 연계된 목표 및 지표를 세우고 이를 공식화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게 되면 협동조합의 SDGs 성과와 임팩트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보고는 보다 체계화되고 활발해 짐

- VNRs에 포함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서 협동조합의 임팩트 보고 및 측정이 일관되게 추진됨. 정부 통계 기관과 협동조합 전국조직이 서로 협업하여 협동조합이 SDGs 달성과정에서 뒤에 남겨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음

3-2. 협동조합운동과 SDGs 달성을 연계한 계획 수립 사례: 네팔¹⁴⁾

- 네팔(인구 3055만 명)의 협동조합은 국가주도적인 성격이 강한 가운데 협동조합부문을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둥으로 대우하고 각종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협동조합법은 1992년 제정되고 제8차 5개년 발전계획(1992-97)에 생산과 유통 분야 협동조합을 촉진하고 번영을 창출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참여를 증진한다고 설정함. 이후 2017, 2019년에 협동조합법이 개정되었는데, 특히 2017년 개정 이유는, 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 및 지속가능발전에서 협동조합의 기여를 지원하기 위해서임
- 네팔 협동조합은 30,970개, 311개의 지역별 연합회, 11개의 권역별 연합회, 18개의 부문연합회를 지님. 전국협동조합은행(NCBL)과 전국협동조합연맹(NCF)이 있으며 전체 조합원은 730만 명으로 추계됨. 주로 농업, 신용, 은행, 소비자협동조합이 활동함
- NCF가 중심이 되어 2019년 「협동조합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침」을 공표함. 그 배경에는 HLPF의 제1차 회기(2016-19)에 네팔 정부가 VNR를 제출하도록 국제기구의 자문과정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SDGs의 현지화 및 달성 수단(특히 금융) 획득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

14) National Cooperative Federation of Nepal, Guidelines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or Cooperative Movement in Nepal, *Coop Dialogue Issue 4*. pp.20-25.

할을 강조한 점이 있음. 2017년 공표한 네팔 정부의 VNR은, 협동조합부문을 국가 발전의 세 개 기둥 중 하나로 규정하고, SDGs 1,2,3(건강과 웰빙), 4(양질의 교육), 5(성평등), 7(적정 가격의 깨끗한 에너지), 8, 10(불평등 감소), 17(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에서 강한 기여를 기대하고 만들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이 지침은, SDGs 이행을 위해 여러 차원의 협동조합들이 협력, 파트너십, 개입 분야를 탐색하고, SDGs 실천 차원에서 다양한 층위의 협동조합들의 역할을 점검하며 SDGs 달성을 위한 협동조합 부문의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안내하기 위한 역할을 지님. 그중 SDGs 5(성평등)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음(〈표 2〉)

〈표 2〉 SDGs 5: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

활동	책임	목표대상 및 기한	검증 수단
이사회 중 여성의 비율을 50%, 관리직 차원에서는 33%를 보장	NCF 및 중앙, 권역, 지역연합회들, 기초 협동조합	2025	이사회 중 여성 비율
		2030	관리직 중 여성 비율
협동조합 내 여성정책 정비	NCF	2022	'협동조합 성평등 정책' 수립
협동조합 성평등 정책 보급	중앙, NCBL, 지역 연합회들	2022년 계속 진행	협동조합 성평등정책 보유 협동조합 수
여성과 여성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적 역량훈련 및 금융 리터러시 조직	기초 협동조합들	2020년 계속 진행	여성 조합원 대상 기업가적 역량 훈련 프로그램 제공 협동조합 수
인식증진/성폭력에 대한 민감화	기초 협동조합들	2020년 계속 진행 (정기적으로 갱신)	성평등위원회 설치 협동조합 수, 성평등 관련 담당자 수
인신매매, 성착취 및 기타 착취를 포함하여 민간, 공공 영역에서 성폭력 시 정의를 지지	기초 협동조합들	2022년	성폭력 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수

(출처) National Cooperative Federation of Nepal(2023), Guidelines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or Cooperative Movement in Nepal, Coop Issue 4, pp.20-25.

4. 결어: 제언

4-1. 국제사회의 공동약속을 실행하는 한국협동조합을 지향해야

- 한국의 협동조합 지형은, ‘2030 의제’와 SDGs 달성이라는 국제사회(글로벌 커뮤니티)의 공동약속보다 ESG가 핵심 열쇠어로 담론과 경영에 반영되어 있음. 농협중앙회는 2021년 ‘범농협 ESG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새마을금고도 2022년 ESG경영위원회를 발족함. 신협중앙회 역시 ‘ESG 실천 캠페인’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주체와 함께 대국민 실천을 견인하고 있음
- ESG 용어는, UN이 기업·단체와 손잡고 “세계 공통의 이념과 시장의 힘을 연결할 길을 찾자”는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2000년에 발족한 글로벌콤팩트에서 2004년 발간한 보고서 *Who cares wins*에서 처음 등장함. 이 보고서는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등 대규모 국제금융기관 20개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로서,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금융기업의 국제 비즈니스 규범을 정리했음. 이후 ESG는 특히 투자자 중심 기업에서 중요한 화두로 확장되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고 국내 공시기준도 마련되고 있음¹⁵⁾
- 대규모, 특히 금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에게 ESG 공시에 적응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과제임. 하지만 협동조합 운동 전체적으로 보면 ESG 공시 의무가 없는 중소규모의 협동조합에게 직접적인 실천과제로 연결되지 않음¹⁶⁾ 그 외에도, 지속가능발전 성과를 장기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규범이 정착된 협동조합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기준인지 등 검토가 필요함¹⁷⁾
- 글로벌 차원에서는 SDGs 달성, 국내 차원에서는 K-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7.5. 시행) 실행 주체로서 한국협동조합운동의 발걸음을 정렬하고, 협동조합 활동과 사업의 목표를

15)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 공개됐다 [이달의 ESG 이슈]’, 『더 나은 미래』, 조선일보, 2024.4.30.

16) 유럽연합의 ESG 공시 지침인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RRD)에 따르면, 종업원 수 250명 이상, 자산 2000만유로 이상, 매출 4000만유로 이상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EU 역내에서 1억5000만유로의 순매출액을 창출하고, EU에 자회사 또는 지사를 보유한 외국계 기업이 그 대상이다. (박태호, ‘혼란의 ESG 공시...어떤 기준 따라야 할까’, 『덜로이트 인사이트:2023 금융산업 전망, 엔데믹 위기의 시작과 극복』, 2023). 국내는 코스피 상장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17) 박은경, ‘사람과 환경까지 포용하는 ESG 공시기준 곧 의무화한다’, 『한겨레신문』, 2024.06.04.

SDGs과 연결하여 임직원·조합원들에게 침투시키고 소통하는 노력이 더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세계 인구의 12%가 협동조합 조합원인데, 현실은 이들 대부분이 협동조합운동의 힘과 잠재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생활을 어떻게 전환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다”(ICA 블루 프린트, 2020)는 진단이 한국 협동조합운동에도 들어맞음

4-2. 2025~26년 사이에 두 번째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를 제출

- 팬데믹, 기후위기, 식량·에너지 안보 등 글로벌 복합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과가 후퇴하고 있으며, 이는 취약한 상태의 국가와 계층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SDGs 달성은 요원하여 2030년까지 오직 SDGs 세부 목표의 15%만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임(WMO, United in Science 2023).¹⁸⁾
- 이러한 상황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2024~25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ODA 공여국)로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할 것임. 이에 SDGs 이행에 실제 행동을 수반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VNR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¹⁹⁾ 현재 가까운 나라들만 보더라도 중국(2016, 21년), 일본(2017, 21년), 필리핀(2016, 19, 22년), 인도네시아(2019, 21년), 말레이시아(2017, 21년), 베트남(2018, 23년), 네팔(2017, 20, 24년), 동티모르(2017, 21년), 타이(2017, 21년) 등이 2번 이상 제출하였음(2024.5월 기준)
- 협동조합진영은 UN의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 선포 취지에 맞게 VNR 작성과정에 참여하여 SDGs 달성에 협동조합이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인정과 기록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18) 송지선, 「유엔 총회기간 지속가능발전 논의 내용 및 의의: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3.11.

19) 위 보고서에서도 두 번째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 제출을 제안함

4-3. 개별법 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의 공동활동을 상설화

- 개별법 협동조합들의 네트워크로서 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1990년대 말에 결성되어 느슨한 수준의 공동활동(주로 ICA 참가 및 공동통번역, 협동조합 행사)을 해왔음. 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기본법 협동조합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협동조합 인식증진, 정책제안 및 제도 개선, 회원 연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초기에 비하면 협동조합 사이 협동·연계·연대는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음.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9개 설립되었고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으로 활동하거나 전북 장계농협이 장계의료복지사협을 추진하는 등, 개별법 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 사이에 보완적 관계가 등장함. 정부의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도 개별법 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 간 거래(상호거래) 지원 방침을 제시함
- 앞서 인식한 협동조합과 SDGs 실천과제, 국내의 급속한 초고령사회 진입(2025년)과 연결되는 개별법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고령화 현실과 참여 약화 현상을 고려하면 개별법 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이 공동 비전 수립, 공동 정책 제언 및 제도 개선 활동, 대국민 협동조합 캠페인을 펼칠 수 있는 양자간 논의를 상설화하는 것이 급선무임
- ICA는, 협동조합의 가장 큰 강점으로 전 세계, 전 부문에서 활약하면서도 공통의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함. 협동조합의 가장 큰 약점으로 협동조합 사이 협동, 연구 교육 자원공유가 제한적이고, 대규모 협동조합에서 참여가 매우 부족한 점을 지적함. 동시에 중요한 기회가 출현했다면서, 새로운 기술, IT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유 및 비즈니스 연결, 협동조합에서 청년과 여성의 활동 증진, 사회연대경제에서 출현하는 여러 사업모델, 새로운 분야 개척과 같은 점에 주목하여 협동조합의 다양성을 인식하여야 함(제2차 블루 프린트, 2020). 한국의 상황도 유사하게 보임. 이미 성공한 기성 협동조합으로서 개별법 협동조합이 지닌 경제·사회적 존재감과 경험(성공과 실패 양면에서), 새로운 조합원층과 수요를 조직하며 기민하게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기본법 협동조합이 서로에게 상승작용을 할 수 있을 때 한국협동조합운동은 질적으로 도약

할 수 있을 것임

- 정부는 이러한 만남을 북돋우며, 정부의 자원으로 가능한 도움이 무엇인지 양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3자간 합의되는 행동부터 협동조합 플랫폼(<https://www.coop.go.kr/home/index.do>)에서 가시화할 필요가 있음
- 가령, 공신력 있고 협동조합 대부분을 포괄하는 (가)‘한국 협동조합 현황’ 통계 생산 및 갱신, 협동조합의 임팩트 보고서 및 대국민 인식조사, 매년 협동조합의 SDGs 실천에 관한 성과공유회 및 협동조합 임팩트 보고서 작성, 협동조합 정책 및 제도 개선 관련 공동 포럼 개최 등을 한국협동조합협의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지지하는 지형을 만드는 것임

(참고 2) 일본 협동조합 진영의 ‘2022년 협동조합 인식 조사’

2018년 4월, 일본 협동조합운동은 사단법인 ‘일본협동조합연계기구(JCA)’를 결성하여 국내외에서 일본 협동조합운동을 대표하는 비영리 활동을 펼치고 있음. 주된 활동은 협동조합 사이 협동, 협동조합 관련 정책 제언, 연구 및 교육, 국제활동임. 2022년 동 기구는 전국 18세 이상 19,888명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인식조사를 실시, 그 분석결과를 2023년 공표함

이 조사 분석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협동조합 가입률은 개인 기준으로 46.5%, 세대 기준으로 51.4%이며 조합원 세대 중 18.5%는 타 협동조합에도 가입한 다중가입세대였음. 협동조합 조합원은 타 협동조합에 대해 비조합원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으며 협동조합에 대한 이미지는 ‘전통이 있다’가 가장 높고, 협동조합에 대한 공감도는 ‘친밀하다’는 점이 가장 높았음.

또한 SDGs 17개 목표에 대한 관심도를 5점 척도로 질문했을 때, 응답자 전체 차원에서 목표 3(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고, 20대는 목표 16(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60대 이상은 목표 13(기후행동)에 가장 관심이 높았음. 조합원, 비조합원의 SDGs 관심도를 물었을 때 모든 17개 목표에서 조합원의 관심이 비조합원에 비해 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고, 이는 모든 협동조합 부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음. 전 지역의 인구비율로 할당한 대국민 조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므로 일본 협동조합의 SDGs 홍보 및 실천이 어느 정도 침투했으며 친화성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음

(출처) [일본협동조합연계기구](#)

5.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23~’25)」, 2023.3.3.
- 송지선,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3-32: 유엔 총회기간 지속가능발전 논의 내용 및 의의: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3.11.
- 우창빈·김태균·김보경,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의 글로벌 경향성 분석: UN 개발적국별리뷰(VNR)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제15권 제2호(2020.06), pp 65-108.
- ILO/ICA (2014). Cooperative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contribution to the Post-2015 Development Debate”, 이경수(역) (아이쿱 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11), 『협동조합과 지속가능발전: 포스트 2015 논의에 대한 기여』, 서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4.
- 최규빈·홍제환, 「북한의 SDGs 이행동향: ‘자발적 국별리뷰(VNR)’ 보고서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21.07.20.
- ICA, A People-Centred Path for a Second Cooperative Decade: 2020-2030 Strategic Plan (제2차 블루 프린트), 2020.
- ICA, Position Paper cooperatives:key partners in realizing the Agenda 2030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3.
- ICA-AP, *Coop Dialogue Issue 4 Cooperatives’ Contribution to SDGs: Achievements and Way Forward*, 2023.
- Moxom, J. et.al., Cooperative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role of cooperative organisations in facilitating SDG implementation at global, national and local levels, Coop4dev.coop, 2022.
- Singh, S., Singh, D., Dave, M. and Iyer, B., Cooperatives: Present but Not Visible Evidence from Voluntary National Reviews, *International Journal of CO-OPERATIVE ACCOUNTING AND MANAGEMENT*, VOLUME 3, ISSUE 2, 2020.

주제발제

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가능성과 상상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바띠 이사장

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가능성과 상상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권오현.

협동조합의 상상을 실현하는 디지털 기술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기술 활용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의 7대 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자율과 독립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디지털 기술의 속성

- 쌍방향 연결
- 지식, 데이터, 관계의 축적
- 알고리즘과 자동화

시민 기술과 열린 기술

- (민주주의) 개방, 포용, 소통, 참여, 협력, 공유, 자치
- (공공재) 오픈 소스, 데이터, 플랫폼, 알고리즘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디지털 기술

“협동조합 운영 어렵잖아요?”

구성원과의 **관계 중심**
구성원간의 **신뢰와 협력** 기반

다양한 방식의 **의사결정**
효과적인 **목표 관리와 정렬**

일반적인 ERP, KMS 를 넘어선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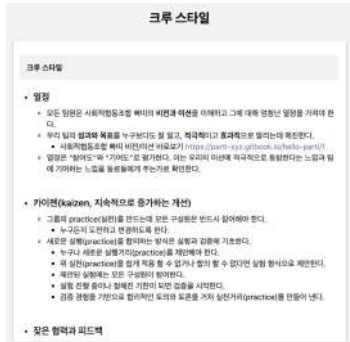
민주적 운영

자신의 필요와 지향을 따라 모인 조합원들의 **공동의 미션**을 향한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기여
신뢰를 쌓고, 자발적으로 **협력**하며,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하고 자리잡기**

- 서울(강동, 서대문, 양천..)
- 인천
- 부산
- 천안
- 제주
- 일본
- 미국 샌프란시스코
- 호주 멜버른
- 영국 체스터



민주적 운영 -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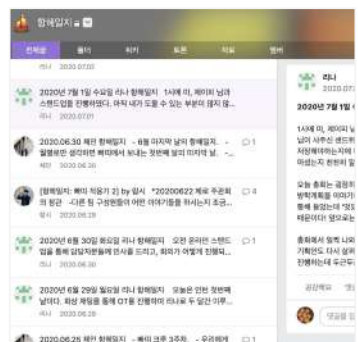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공간
 공지, 작업, 회의, 회고.
 비전과 미션, 목표와 지표,
 재정, 활동비 등.

크루 스타일
 함께 만든 원칙
 지켜야 할 약속
 우선해야 할 가치

핸드북
 일하는 방법, 필요한 정보
 실험을 통한 점진적 개선
 공동 편집

총회와 월간 타운홀
 크루와 조합원이 참여
 목표와 재정 현황 논의
 조직 구조 개편

민주적 운영 - 협력



항해지도와 운항점검
 분기목표와 지표
 주간 목표와 계획 수립
 핸드북 등 가이드 보완

공동작업
 위키로 협업하기
 비동기와 실시간 소통
 매일 아침 스탠드업

의사결정
 제안, 토론, 결정 기록
 의사결정 규칙의 점진적 개선
 결정 과정과 결과를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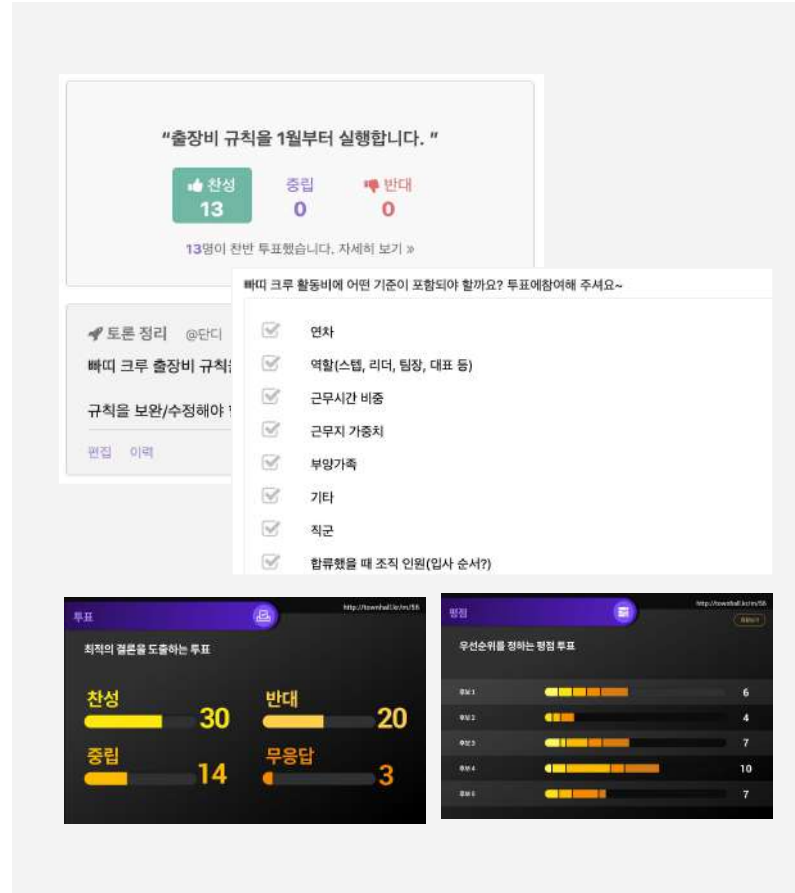
항해일지와 주간회고
 하루, 주간, 분기,
 프로젝트별로 팀과 개인의
 성과와 감정을 돌아보고
 개선점과 실험꺼리 찾기

의사결정

함께 의사결정 규칙과 가이드를 만들어
의사결정의 바탕 만들기

다양한 의사결정의 시도, 실행을 통한 개선

- **Consent** 👤 동의. 반대하지 않는다면 동의입니다.
- **Consultative** 💬 조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내가 결정합니다.
- **Delegation** 👤 위임. 당신이 결정해주세요. (특정 동료 or 팀)
- **Consensus** 🤝 합의. 모두가 동의합니다.
- **Democratic** 🗳 투표. 다수결 투표로 결정합니다.
- **Avoidant** 🏃 회피. 피하거나 묵혀둡니다.
- **Stochastic** 🎲 랜덤. 랜덤한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 **Autocratic** 🧑 스스로. 나 혼자 결정합니다.



민주적 운영 - 정렬

비전, 미션, 가치

지표, 목표, 재정

조직 구조와 회의 체계

역할과 성장

협동조합의 사회 기여를 위한 디지털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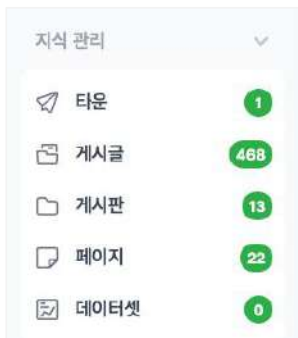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와 로컬 비즈니스,
그리고 오리지널리티의 시대

정보와 데이터의 축적과 공개를 통한
**이야기하기(Storytelling)와
서사(narrative)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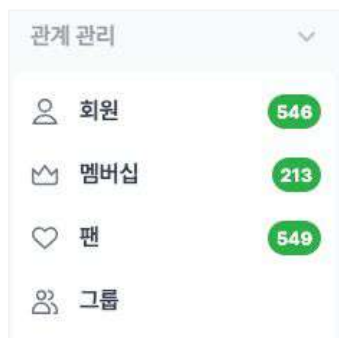
이해관계자 데이터와 채널 관리를 통한
팬 만들기와
관계 관리하기

사회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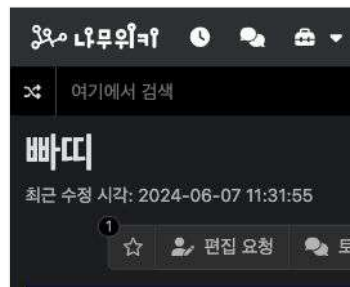
정보와 데이터의 축적, 팬과의 관계 형성과 관리
-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와 로컬 비즈니스, 그리고 오리지널리티



**지식, 정보, 데이터의
축적**



이해관계자 관리
잠재 고객, 고객, 충성
고객, 파트너



채널 관리
문자, 레터, 검색, 유튜브,
대화형시, 위키



커뮤니티의 형성
효능감, 유용성, 유대감,
정체성의 형성

사회 기여

꾸준하게 이야기하기



SSHONY 쇼니 5:33 PM

다들 잘 지내시죠? 요즘 챗gpt나 Bing 같은 AI기반 검색이 이슈인듯하여 하나씩 해보고 있는데 Bing에 디지털 공론장관련 질문하였더니 빠띠를 소개해주네요ㅎ 반가워서 남겨봅니다.

디지털 공론장은 온라인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곳입니다. 디지털 공론장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빠띠 믹스의 경우 배너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그룹의 행사나 공지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1. 또한 공론장에서 나온 의견과 제안을 기록하는 도구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2. 이러한 기능들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디지털 공론장이 잘 운영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협동조합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디지털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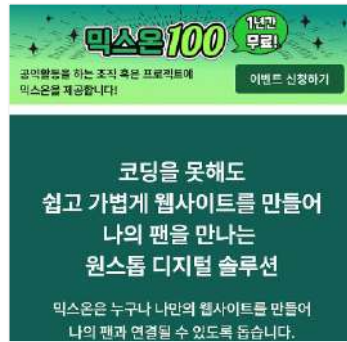
위아래가 아닌
옆으로 확장하는 생태계

정보 공유와 유통
협동조합간의 서비스 연계

다양한 방식의
플랫폼 협동조합

연대와 협력

위아래가 아닌 옆으로 확장하는 생태계



정보의 공유와 유통

라이프인, 소셜임팩트뉴스, 소셜브릿지, 캠페인즈, ...

공동 마켓

더센몰

디지털 서비스와 솔루션

가치관을 반영한 디지털 솔루션 개발과 활용

플랫폼 협동조합

디지털 전문 조직과 로컬 협동조합의 연계 - Eva 컬렉티브의 컬렉티브

가능성과 상상 - 플랫폼, 블록체인, 인공지능

민주주의와 공공재를 증진하는 열린 기술 - 플랫폼 협동조합, 데이터 협동조합, 시민 기술 네트워크 등 사회적 가치와 공공선의 추구, 경쟁과 독점이 아닌 협력과 공유, 이해관계자의 공동 참여+생산+소유



블록체인과 DAO, Web3

대규모의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조직 의사 결정, 사업 실행, 보상의 연계와 자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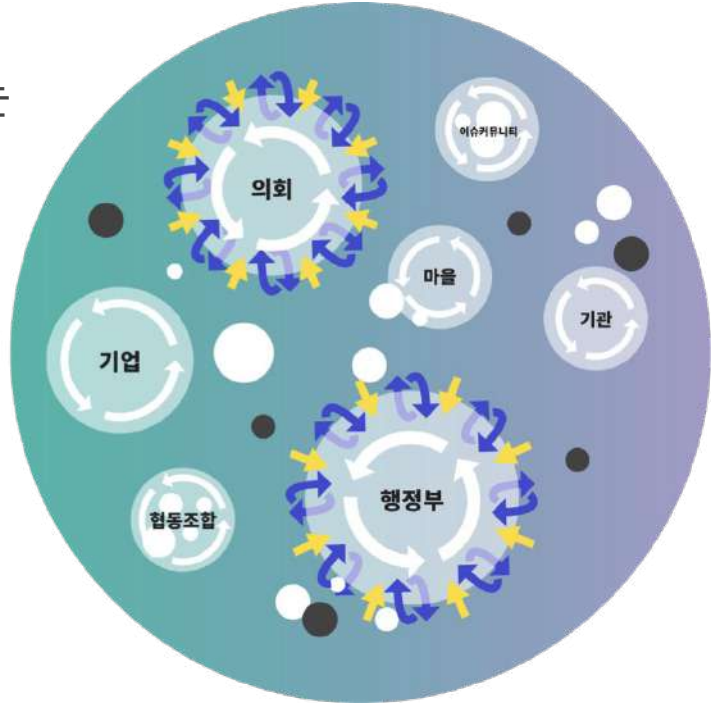
인공지능과 자동화, 정보와 서비스의 연결

반복 작업의 자동화를 통한 효율 증대
인공지능과 연결하는 정보 및 사람과 기술이 혼합된 서비스의 개발과 관리

더 나은 민주주의와 공공재로 만드는 좋은 공동체

시민들이 자유롭게 안전하게,
서로간의 신뢰와 협력을 통해,
사회의 공동 자산을 함께 소유하고 운영하는
약속, 제도, 시스템.

핵심 사회 운영 원리와 유무형의 사회적 자본 구성.



디지털화하는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협동조합이
더 나은 **조직, 연대, 기여** 를 실현함으로써
더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요?

“한번에 하나씩 시도해 보아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43, 2층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070-7610-6417
contact@parti.coop
parti.coop

© 2023 parti co-op. All rights reserved.

주제발제

학교협동조합 조합원, 학습과 교육을 통한 성장

장이수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schoolcoop

학교협동조합

조합원, 학습과 교육을 통한 성장

장아수

01. 학교협동조합

학교를 기반으로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을 말한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who

학교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공익적 사업

what

학교협동조합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how

교육자치 및
학생중심
교육 복지 실현

why

01-1. 학교협동조합은 왜 필요할까요?

필요의 발견
필요는 곧 우리의 문제,
그 문제를 누군가에게 맡겨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우리가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



안전한 먹거리
소통공간

학교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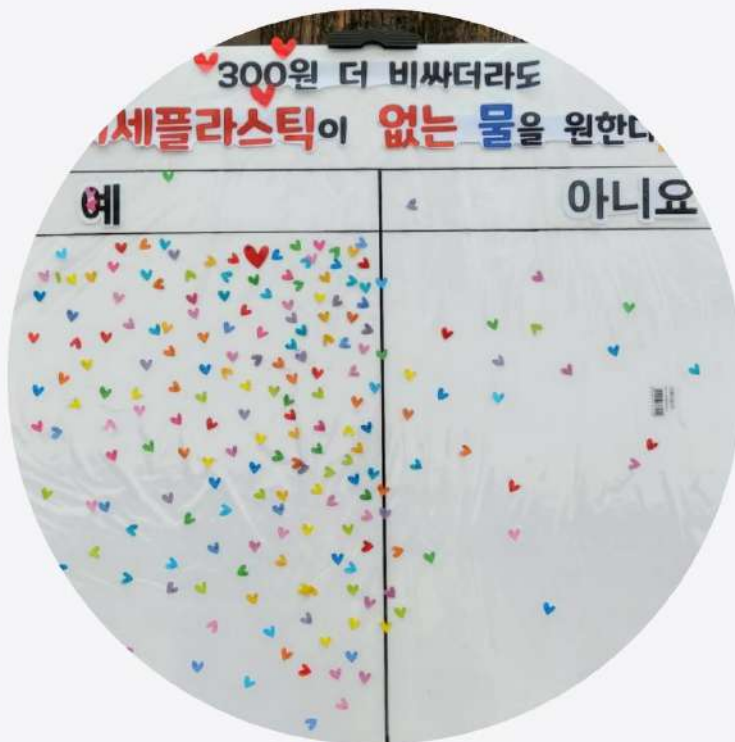
학생복지지원 및
기후위기대응 활동

학생복지



문제해결 및 창업

체인지메이커





01-2. 학교협동조합의 매력

학교협동조합은 변신하는
블록이다!

매력 하나!, Learning by Doing!
‘직접 경험하면서 배운다’는 것이
학교협동조합의 핵심입니다.
학교협동조합의 슬로건에서 보듯이
함께 찾고, 함께 바꾸고, 함께 즐기자!

매력 둘! 민주적 의사결정!
협동조합의 1인1표제는 주식회사의
1주1표제와는 다르게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1인1표제는 학교협동조합의 핵심적
인 민주적의사결정 구조입니다

02. 학교협동조합의 교육 과정

공통교육 : 학교협동조합 설립, 총회, 정관, 기초회계, 경영공시 교육

청소년

- ✓ 1강 -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의 이해
- ✓ 2강 - 학교협동조합의 이해
- ✓ 3강 - 세상을 바꾸는 체인지메이커
- ✓ 4강 - 학교협동조합의 운영
- ✓ 5강 - 졸업한 선배가 들려주는 학교협동조합 이야기

학부모,교사,지역주민

- ✓ 1강 - 협동조합의 이해
- ✓ 2강 - 학교협동조합의 이해
- ✓ 3강 - 다양성의 시대, 공존의 관계성
- ✓ 4강 - 지역 협동조합 사례
- ✓ 5강 - 환경교육과 ESG
- ✓ 6강 - 졸업한 선배가 들려주는 학교협동조합 이야기

02-1. 학교협동조합의 교육

다수가 힘을 모으면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학교협동조합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고
앞으로의 진로와 연결해 더욱 탐구하고 싶어요.

즐겁고 유익한 교육
꾸준히 계속 되기를 희망합니다.

공존과 공생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어요.
미래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교육



좋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음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된 교육이었어요.

지역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얻어갑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신세계와 같은
교육이었습니다. 이웃에 널리 알리고 싶어요.

이타적인 마음과 선한 영향력
미래 세대를 위해 당장 실천하고 싶습니다.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03. 학교협동조합의 가능성

작은학교와 학생수 감소

**100명 이하의 학생수
학교가 마을의 경제적, 교육적
공간이 되어야하는 곳**



03-1. 학교협동조합의 가능성

에너지에 대한 탐구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협동조합의 자세



04. 학교협동조합의 교육 과정 추후 계획

학교협동조합 교육 모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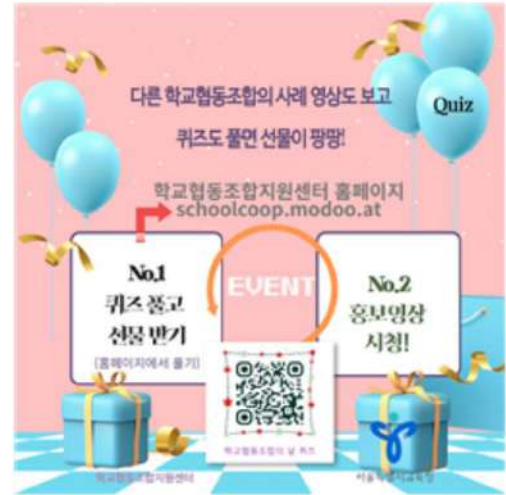
1. 공존을 위한 상호협력과 존중의 태도,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는 도전과 용기를 기를 수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개발.
2.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바라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앞으로도 청소년 대상의 교육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3. 학교교구성원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학교협동조합 학교가게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학교교구성원에 대한 환경교육과정 개발.

04-1. 학교협동조합의 과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연계 방안 마련

학교협동조합중앙지원센터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연계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법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연계 협력을 통한 평등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

05.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협동조합

공존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함께해요
학교협동조합

schoolcoop

감사합니다

주제발제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생태계 이야기

박용수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GWANGJIN SOCIAL ECONOMY NETWORK

생태계 이야기



광진구사회적경제 생태계이야기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01.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어떤 조직인가?

**'연대와 협동으로
함께 사는
경제공동체'**

기업명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설립일	2015년 6월 11일
자본금	230,000,000 원
회원 수	69개 회원사
총 조합원	약 6,000명 추정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
주소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478 광진 경제허브센터 도약관 101호



01. 광진구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어떤 조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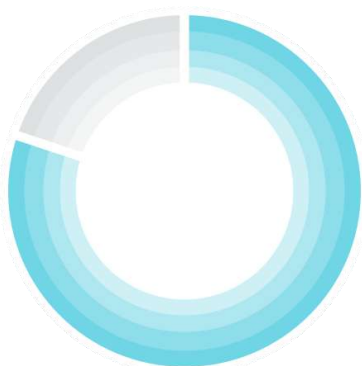
설립과정

- 광진구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시민사회단체, 마을넷 16개 조직이 협력
- 광진구의 일자리, 빈곤 등 지역문제해결을 위해 네트워크 구성
- 현재 광진구에는 사회적기업 17개, 예비사회적기업 14개, 마을기업 7개, 협동조합 141개, 자활기업 8개
- 향후 네트워크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관내의 모든 사회적경제조직을 묶을 예정



01. 광진구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어떤 조직인가?

규모를 통한 의미



- 광진구 내 협동조합 수 200여개
- 협동조합 실제 운영율 50%
- 100여개 사회적경제 조직 중 70여개 회원사
- 사실상 실체를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의 80% 이상이 회원사라는 의미

01. 광진구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어떤 조직인가?

지향하는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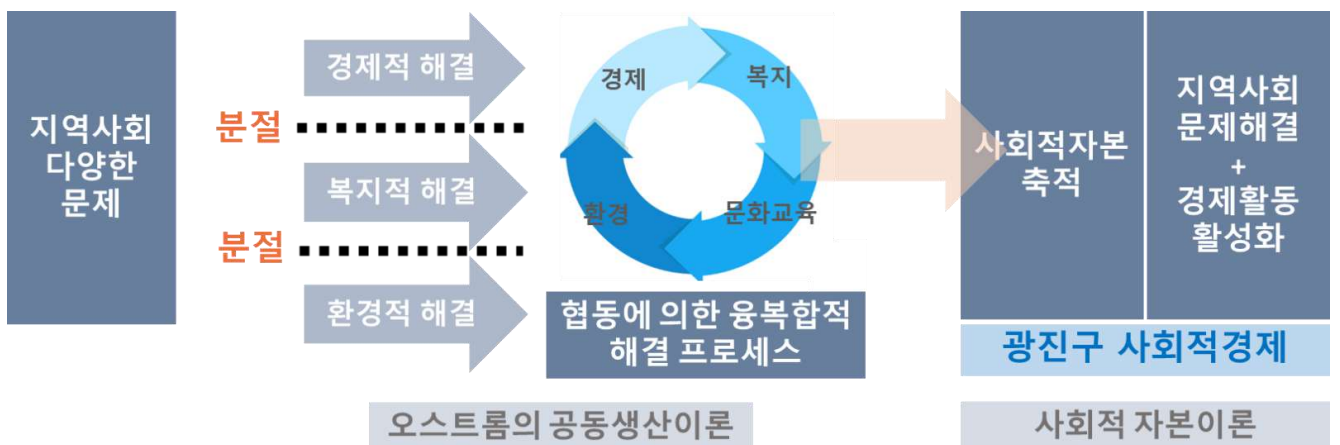
- 지역소비는 다시 지역에 재투자하는 볼로냐 모델과



- 몬드라곤 모델
 - 제조업, 사회서비스, 은행, 소매업, 연구, 교육 분야의 120개 협동조합과 8만명의 노동자로 구성됨
 - 특징: 네 개(교육, 금융, 복지서비스, 연구&개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책상위에 120개의 협동조합이 협업

01. 광진구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어떤 조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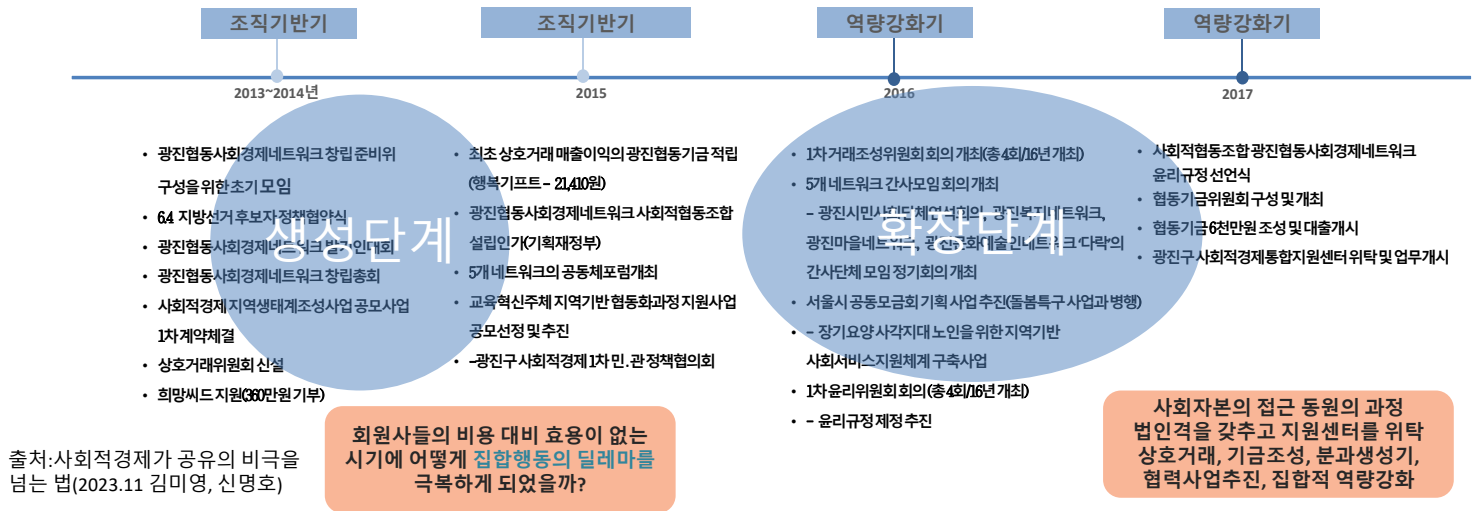
광사넷 운영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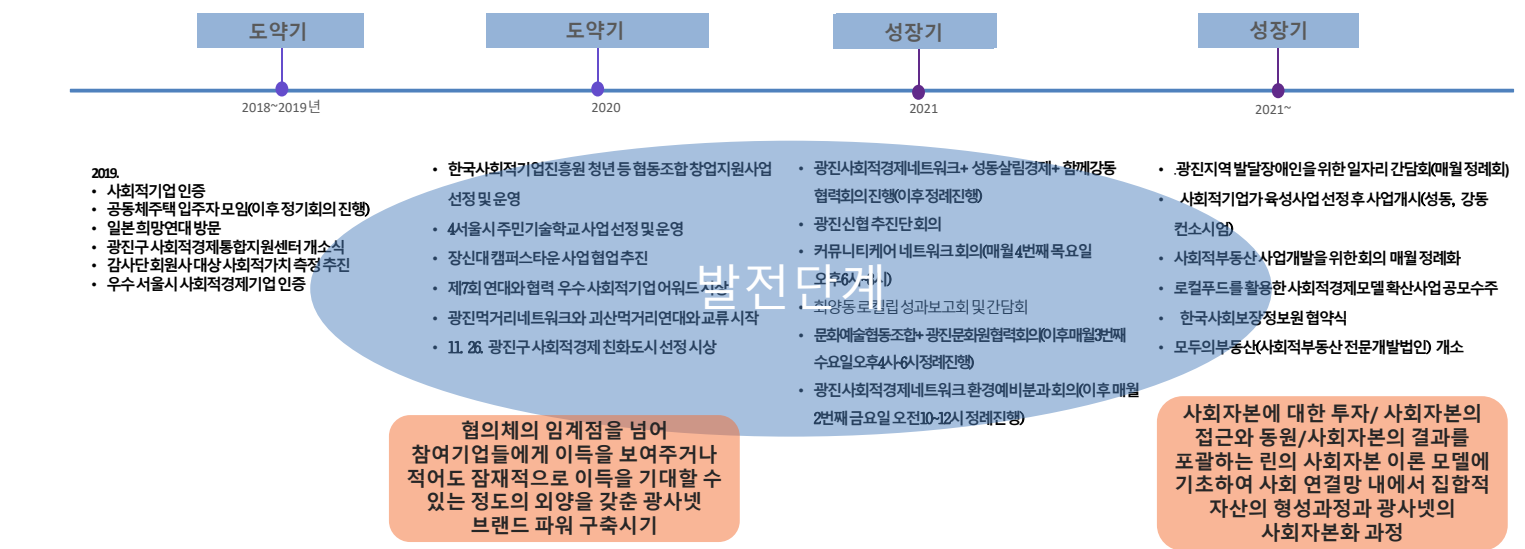
01.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어떤 조직인가?

광사넷 연혁



01.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어떤 조직인가?

광사넷 연혁





광진구사회적경제 생태계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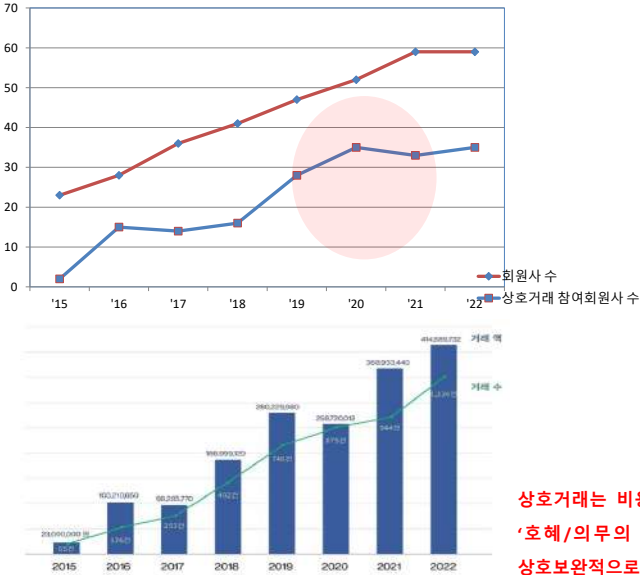
02. 생태계 강화 프로젝트

진짜배기 네트워크를 하자



02. 생태계 강화 프로젝트

<회원사 수 및 상호거래 참여회사 수 증감 현황>



출처:협력작동방식(2023.11 이은주)

회의 및 분과 유형	운영 빈도	참석 대상 및 구성원	
정기 총회	연1회(매년 3월)	회원사 전체	
이사회	분기별('22년 이후 집행위원회와 공동회의로 진행)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	
위원회	정기운영위원회	월1회(매월 둘째주 화요일)	회원사 전체
	집행위원회	연4회	6개 분과장+집행위원장
	조합원자격심의위원회	가입신청 기업 발생시	관련 회사 대표로 구성
	거래조정위원회	안건 발생시(초기에만 개최됨)	관련 회사 대표로 구성
	윤리위원회	안건 발생시	관련 회사 대표로 구성
	기금위원회	안건 발생시	관련 회사 대표로 구성
분과	돌봄분과	월1회(매월 셋째주 목요일), 공동사업 진행으로 수시운영	돌봄 관련 6개 회원사
	교육분과	월1회(매월 둘째주 수요일)	교육 관련 10개 회원사
	주거복지분과	월1회(매월 셋째주 목요일), 공동사업 진행으로 수시운영	주거복지 관련 8개 회원사 + 비회원사3곳
	먹거리분과	월1회(매월 넷째주 수요일), 공동사업 진행으로 수시운영	먹거리 관련 8개 회원사 + 비회원사 1곳
	유통분과	월1회(매월 넷째주 화요일)	유통 관련 4개 회원사 + 비회원사 1곳
	환경분과(예비)	월1회(매월 둘째주 금요일)	환경 관련 회원사 + 비회원사

상호거래는 비용절감과 기반상품이라는 '교환의 논리', 친밀함과 관계성에 의한 '호혜/의무의 논리', 가치공감과 같은 내적동기에 따른 '배려의 논리'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면서 상호거래 참여를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02. 생태계 강화 프로젝트

<회원사들의 상호거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요인>

- **회원사 간 공동수주사업 참여 여부**: 컨소시엄 참여기업 간 상호거래, 공동수주사업을 위한 공동법인의 상호거래 증가
- **기업/조직의 성격**: 지역 내 다른 주체들과 협력하고 연대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업방식의 경험과 역사가 축적된 기업/조직들
- **공간공유에 따른 친밀감/관계성 형성**: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회원사의 상품 거래 경향성
- **기업 대표의 가치철학과 관련된 내적 동기**: 기업대표의 가치철학과 관련된 내적동기 (과거 시민단체활동가, 학생운동권, 종교지도자 등의 활동경력을 갖고 있는 공통점)
- **비용절감효과**: 비용 50%를 광사넷이 지원하는 세무기장 서비스에 대해 소규모기업이나 신규기업들의 구매 급속히 증가
- **경영과 사업에 필요한 기반상품**: 생필품, 전산, 광고, 통신 서비스의 꾸준한 거래 유지

출처:협력작동방식(2023.11 이은주)

02. 생태계 강화 프로젝트

- 돌봄분과** 돌봄서비스가 각각 분절되어 제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회원사들이 서비스 협업을 통해 통합돌봄서비스를 만들어 원스톱으로 어르신 댁에 제공
- 교육분과** 교육 관련 기업들의 교육 프로그램 중복으로 갈등이 발생하면서 이 문제를 협력을 통해 생산적으로 해결하고자 분과 구성. 오랜 시간 친목 활동과 협력 활동 전개하면서 구성원 간 친밀감과 신뢰 형성되어 공동수주사업 추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커리큘럼을 공유, 연계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 주거복지분과** 고도화하고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하여 더 큰 교육 시장 접근 목표
늘푸른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임시주택마련 문제를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구성.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주거환경 개선위해 서로 협력하여 주거 편의 서비스를 개발,공급하는 것이 목표. 광사넷 회원사만이 아닌 지역 내 다양한 유관단체들을 포함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지향
- 먹거리분과** 동부여성발전센터의 먹거리 주체 발굴을 위한 먹거리 전문강사양성과정을 마친 강사진이 미나리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광진구의 건강한 먹거리 생태계와 직거래를 통한 우리 농산물과 농촌 지역과의 상생을 목표로 분과 설립
- 유통분과** 광사넷 회원사와 지역 소상공인의 상품을 온라인 앱을 통해서 회원사 구성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자본력과 기술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에 직면. 2022년부터 신규 분과원 합류로 온라인 앱을 넘어서서 회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촉하고 도농직거래까지 확대하는 사업 시작

출처:협력작동방식(2023.11 이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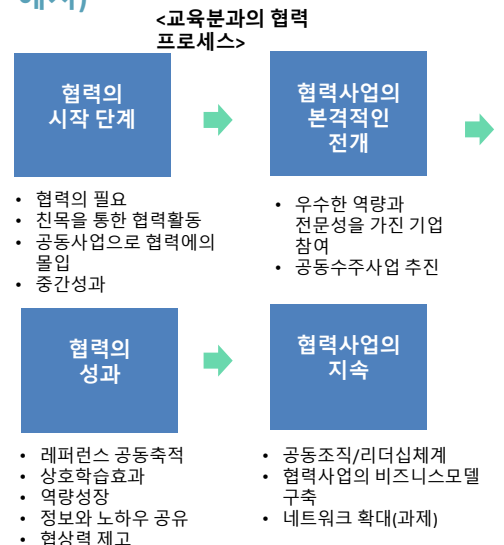
02. 생태계 강화 프로젝트

▪ 분과들의 공동사업 추진과 상이한 조직적 발전 경로

분과명 (구성년도)	공동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분과의 성역 및 발전방향	현재 활동		
			거래 관계	사회적관계 내부	외부
돌봄 (2015)	-서울시돌봄특구사업 공동수주로 전국 최초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서울시 질적으로 제도화(서울돌봄SOS선디), 공동수주사업 확대(미음단위 통합돌봄 서비스도 실행사업 추진)	사업단 →공동수주사업 컨소시엄 네트워크(상호협력)	●	●	○
교육 (2015)	-회원사간 강사와 강의안 상호호환, 공동법인(가치유담 협동조합) 설립, 공동사무실(별) 마련, 다수의 공동수주사업 수행	친목도입 →공동수주사업조직	●	●	-
주거복지 (2019)	-우거복지상담 긴급주택살림을 통한 위기가구 임시주거공간/주거지원/주택정착/시민사회활동등, 및 취약계층 공동체유망 마련 사업 수행	네트워크회의 →지역 네트워크 성장	○	●	●
먹거리 (2020)	-먹거리환경교육, 동거농성 먹거리교육 및 공동식사, 자활위안계를 먹거리실매조사, 과산과 도농협력사업 추진, 안정적인 회의의 집행체계 마련 중	네트워크회의 →분과로 심화	○	○	○
유통 (2020)	-가온 마을이이(분과)가 유통분과로 재구성됨, 유통전문회사'잇브디테일' 설립	분과의 형태 변화	○	○	-
환경 (2022)	-최근 강화하된 준비, 도입 시작	예비분과	-	-	-

* ●는 관련 활동이 매우 활발한 상태, '○'는 관련 활동이 있지만, 저활성화권 상태, '-'는 관련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를 나타냄

▪ 분과의 협력의 선순환 구조 (교육분과 예시)



출처:협력작동방식(2023.11 이은주)

02. 생태계 강화 프로젝트



03. 사회적경제기업간 연대와 협동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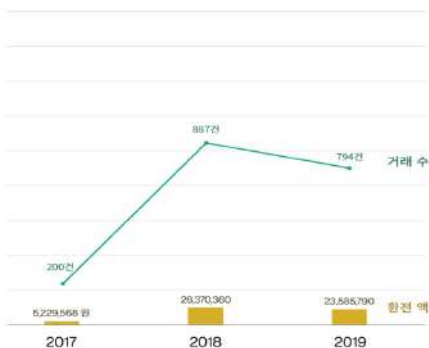
다양한 시도와 프로젝트



- 구성원의 소비촉진을 위해 마을화폐인 광화폐 시스템 도입 및 활성화
 - 조합원의 광사넷 회원사 상품소비 촉진
- 광화폐 환전액 및 거래 수



- 회원사 간의 기업 간 거래(B to B)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마련
 - 기업간 거래를 통해 광진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 광사넷 상호거래액 & 거래 수



03. 사회적경제기업간 연대와 협동활동

다양한 시도와 프로젝트

광진협동기금

출자금 및 상호거래를 통한 매출액의 2%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 기금조성

지역기금

회비/기부

공제부금

공제부금 희망하는 기업들이 매달 일정 금액 납입, 급전 필요시 낮은 금리(2%)로 대출(무담보, 무보증)



2023년 기금현황:
누적액 135,000 천원

[사회적 금융]-신협
[사회적 부동산]

03. 사회적경제기업간 연대와 협동활동

시민 자산화-공유공간 '나눔'



- 5F 디지털광진 (지역연론)
- 4F 광진주민연대 (시민운동조직)
광진협동사회적경제네트워크
21세기 자막단 (사회적기업)
- 3F 도우누리/늘푸른돌봄센터 (협동조합)
공유하는 회의공간 (공유공간)
- 2F 더불어내과의원 (마을주치의)
- 1F 다은약국 (동네약방)
광진생협&더마실카페 (자활기업)
공유하는 식당 (내부식당+공유공간)
- BF 타악전문예술단 울력 (문화단체)
공유하는 교육공간 (공유공간)

03. 사회적경제기업간 연대와 협동활동

'나눔' 공간 개요

- ③ 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41-17
- ③ 토지면적 : 411.9 m²(124평), 건축면적: 200.46m², 연면적 : 1,000.54 m²(124평), 층수 : 지하1층/지상 4층
- ③ 공간구성 : 지상 4층, 지하 1층, 주차장 별도

구분	면적(m ²)	공간구성 / 입주 단체(기업)
옥탑층	24.93	광진닷컴(디지털광진), 공유 정원
4층	196.5	광진주민연대, 21세기자막단,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SE센터·특구사업단·찾동지원단·시민허브·주거복지센터·광진생협 등)
3층	200.46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늘푸른돌봄센터, 공유 회의실
2층	200.46	더불어내과 의원
1층	148.52	다운약국, 행복중심 광진생협·더마실카페, 공유식당
1층	44.46	주차통로
B1층	210.14	전통타악예술단 울력(공유 교육장), 개인 연습실, 서고(자료 보관), 창고(생협, 입주단체)

03. 사회적경제기업간 연대와 협동활동

2017년 안전한 동지 만들기 2 공간 매입 자본금

A. 공간 매입자금 : 3,925,160,000원

- (1)광진주민연대 기금(임차보증금) 600,000,000원
- (2)단체 임차보증금 760,000,000원
- (3)단기차입금(희망벽돌) 238,000,000원
- (4)은행대출 2,300,000,000원
- (5)자본조정(공사비 후원) 27,160,000원

B. 공간 매입비용 :3,883,407,615원

- (1)토지·건물 매입비 3,200,000,000원
- (2)취등록세 등 매입비용 136,308,575원
- (3)시설투자비(자산성 시공비) 547,099,040원

03. 사회적경제기업간 연대와 협동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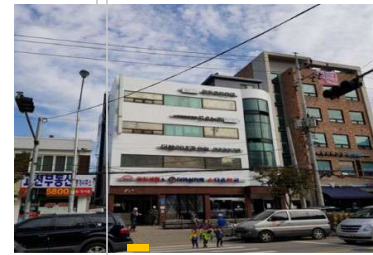
공유공간은 지역활동 史를 담는다

1994년 겨울, 우리는 즐거운 상상을 했다



2018년 가을, 즐거운 상상과 작은 현실에 '더 크고 담대한 꿈을 담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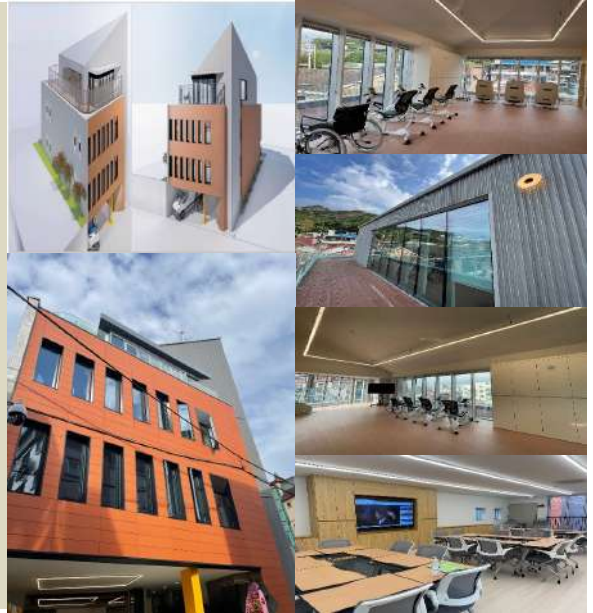
2010년 봄, 상상은 작은 현실이 됐다



-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원사의 종사자 7가구 + 사회주택사업을 하는 회원사가 협업
- 56억 규모의 공동체주택 완공
- 총 2동으로 1동은 종사자 7가구가 입주(1호는 공유공간으로 사용), 나머지 동은 임대사업으로 사용
- 구의역 도보 10분거리(자양로19가길 10-5)
- 시세보다 1억5천~2억 절감



- 공유공간돌봄(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의 자산화 건물)
-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67-4
- 대지면적 236 m²(71.39 평), 연건평 160.49 m²(48.4 평)
- 2020년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공간 자산화
- 약 36억 규모(자기자본 4억)
- 늘푸른돌봄센터(재가장기요양팀, 노인맞춤돌봄팀, 데이케어센터팀)와 돌봄플러스센터(가사간병서비스, 돌봄sos, 다정밥상(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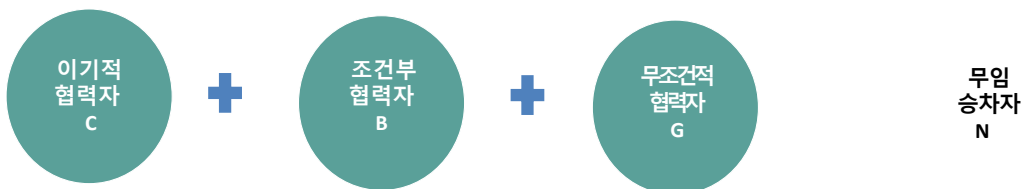
광진구사회적경제 생태계이야기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04.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성과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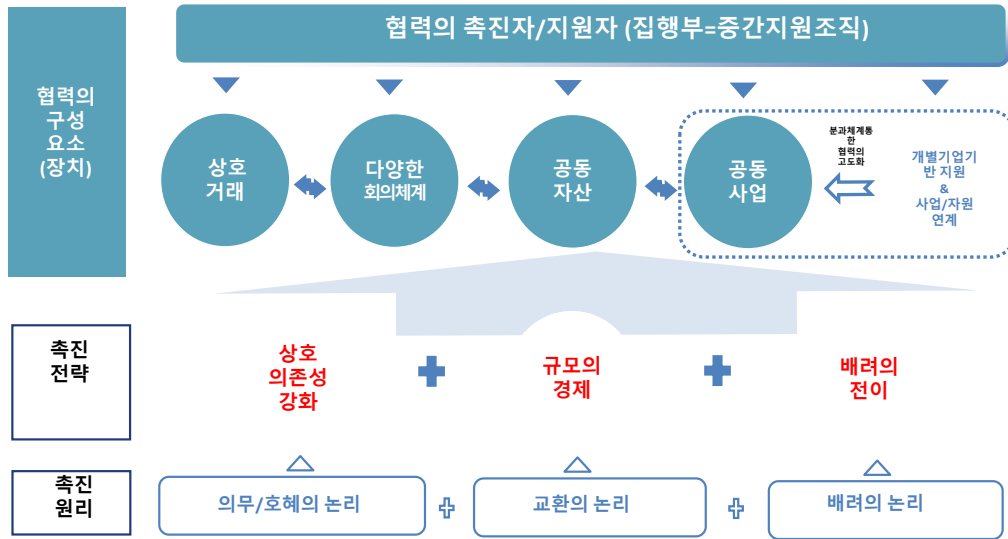
▪ 시민경제학자 루이지노 브루니의 상호성 이론

- 공동체나 조직 내 **다양한 유형의 협력자가 존재**해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이 가능





04.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성과요인 -협력체계모델



출처:협력작동방식(2023.11 이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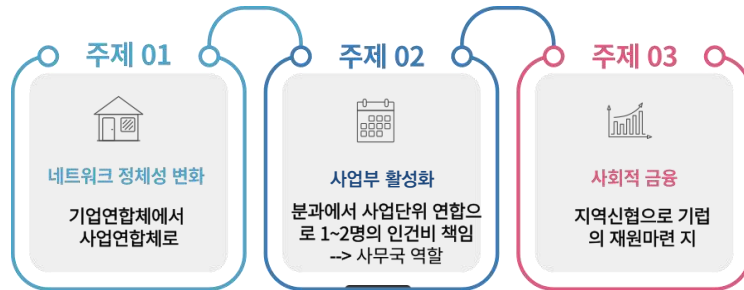
04.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성과요인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필요와 욕구(생존의 문제)로 접근
- 공통의 필요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조직함
 - 2014년 8월에 16개 기업 및 단체를 방문하며 네트워킹함으로써 2014년 7월 3일 창립
- 정부의 정책을 바라보기 보다는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상호거래부터 시작함
 - 호혜의 관계를 통해 필요와 욕구 해결 시도
- 호혜의 관계망이 잘 작동되도록 민주적인 협업방안 및 체계를 구성해감
 - 매월 정례적인 전체회의, 위원회와 분과로 협업체계를 구축
- 네트워크로 기업이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집적함
 - 기업 경영에 필요한 서비스와 클러스터 체계를 만들어 가치사슬을 구축해 나감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보다는 네트워크로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문제 접근



04.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성과요인_미래 비전

기업의 욕구를 해결하도록 하여 광사넷 확대하여 생태계를 공고히 하는 전략



사업을 하기 위해 광사넷 회원가입
자본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광사넷 회원가입
광진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함

THANK YOU.

토론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2025년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

- 한국 협동조합 운동의 과제 -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김대훈

1. 한국 협동조합의 전반적인 현황

구분	조합	조합원	사업	비고
농협 (2021)	1,118개	209만명 (준조합원 1,968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사업 - 61조 9280억원 •신용사업 - 수신 374조원 - 여신 320조원 - 보험 6조 164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자산 507조원 •자본총액 33조 5,063억원 -출자금 14조 5,410억원 -잉여금 18조 9653억원) •고용 91,653명 (범농협)
산림조합 (2021)	142개	49만1천명	-	-
수협 (2021)	91개	15만 3,67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81조 9,710억원 교육지원 1,430억원 경제사업 7조 3,770억원 공제사업 8,710억원 상호금융 34조 5,770억원 - 수협은행 39조 3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자산 100조 4천억원 •수협은행 -자산 57조 1,667억원 -여신 38조 6,783억원 -수신 40조 1,391억원
중소기업 협동조합 (2023.3)	916개	6만7,178명 (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단체 53개 •소속 기업 628,716개 기업 (전체 중소기업의 약 20%)
신협 (2021)	873개	657만명 (이용자 1,447만명)	수신 111.7조원 여신 93.8조원	총자산 124.4조원 출자금 6조 5,616원 고용 9,813명
새마을금고 (2021)	1,297개	거래자 2143.6만명	수신 214조 8,323억원 여신 177조 1,43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자산 242조원 •자본총액 19조 184억원 -출자금 10조 4,992억원 -자본잉여 1,045억원 -이익잉여 7조 6,759억원 -기타포괄손익누계 7,388억원 -고용 16,021명
연초협동조합 (2021)	-	-	-	-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생협) (2022)	200개 (두레/ 한살림 이용조합 8개 포함)	157만 5,936명	1조 3,418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합회별 현황(조합/조합원/사업액) -대학생협연합회: 35개/12만8,133명/742억원 -두레생협연합회: 24개(이용조합원포 함)/24만3,108명/1,364억원 -아이쿱생협연합회: 101개/33만1,197명/6,244억원 -한살림연합: 29개(이용조합원포함)/83 만 5,988명/4,935억원 -행복중심생협연합회: 11개/3만7,510명/135억원
기본법 협동조합 (2023)	24,035개	약 49만 3천명 추정 (제5차 협동조합실태 조사, 2020년 말 기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협동조합 8,926개 - 매출(평균) 3억원 - 자산(평균) 2.5억원 - 부채(평균) 1.8억원 - 자본(평균) 0.6억원 (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2020년 말 기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 총수 24,035개 -일반협동조합 19,661개 -일반협동조합연합회 95개 -사회적협동조합 4,244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5개 -이종협동조합연합회 10개

표 1 한국 협동조합의 개괄적 현황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2021년, 2022년 자료를 활용, 2023년 3월 작성한 자료)

2. 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와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비교

실태조사 항목	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2020년 기준, 2022년 발표)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2022 기준, 2024년 발표)	증감
설립된 협동조합	19,429개	23,892개	23% 증
운영중 협동조합	8,926개	10,976개	23% 증
조합원	493,004명	622,410명	26% 증
종사자	133,290명	189,053명	42% 증
고용	평균 5.4명	평균 6.8명(총73,992명)	26% 증
자산	평균 2억4,970만원	평균 3억4,739만원	39% 증
자본	평균 6,060만원	평균 1억1,227만원	85% 증
출자금	평균 4,763만원	평균 5,382만원	13% 증
부채	평균 1억8,460만원	평균 2억3,512만원	27% 증
매출액	평균 2억9,512만원	평균 3억7,470만원	27% 증
당기손익	평균 (-)433만원	평균 (+)118만원	흑자전환

표 2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보도자료, 기획재정부(2024. 5. 17)

-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까지 설립된 협동조합은 23,892개로 20년(19,429개)에 비해 23.0% 증가했으며, 2022년 현재 운영 중인 조합은 10,976개로 2020년(8,926개) 대비 23.0% 증가
- 협동조합의 조합당 평균 자본은 1억 1,227만원, 매출액은 3억 7,470만원으로 2020년 대비 각각 5,167만원, 7,958만원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18만원으로 2020년 적자(△433만원)에서 흑자로 전환
- 조합원은 총 622,410명, 임금근로자는 73,992명으로 2020년 대비 각각 26.2%, 54.4% 증가
- 조합원들이 협동의 힘으로 만들어낸 협동조합의 자산은 2020년 2억 4,970만원에서 2022년 3억 4,739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증가
- 부채(2020년 1억8,460 -> 2022년 2억 3,512만원)도 증가했는데 자산, 자본의 증가에 비해 부채의 증가 규모가 작은 점은 고무적인 변화임
- 양적, 외형적인 변화보다도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협동조합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개발에서 있어서의 역할일 것임
- 이와 관련하여 2023년 7월 UN 총회에 보고된 UN 사무총장 보고서는 사회개발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협동조합기업의 창업과 사회적 역할을 촉진하고 있는 한국

을 모범국가로 평가

- 뿐만 아니라 UN은 총회 결의안 채택을 통해 협동조합의 사회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역할을 강조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2012년에 이어 10여년 만에 2025년을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언
- 그만큼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협동조합의 역할,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의 협동조합을 둘러싼 현실은 희망적이기보다는 우려가 큰 것이 현실
- 2023년 3월 발표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예산의 90% 삭감(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증액되어 최종 삭감 규모는 전년 대비 80% 수준)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좌초의 위기를 맞았고 그 결과 지난 10여 년간 착실하게 구축해온 협동조합의 신규 창업, 역량 강화,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이 한순간에 붕괴
- 이로 인한 협동조합 당사자뿐 아니라 일선 지자체와 행정기관(등기소 등)의 자증지란, 혼란이 매우 심각한 상황

3. 2025년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 한국 협동조합 운동의 과제

1) 기본 방향

- 2012년 첫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기해 한국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고 그 후 10년여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출현하고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의 시대를 여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었음
-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정책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2025년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협동조합운동의 질적 발전과 성숙을 위한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임
- 이 과정에서 기본법 협동조합과 개별법 협동조합 사이의 협력 매우 중요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사회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그리고 지역개발과 산업 부문에서의 공동사업, 협업해간다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함)
-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개별 협동조합기업, 연합조직, 대변조직의 인식 제고 필요, 협동조합 목적사업의 설정,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보고서, 연차보고서 등의 작성 과정에 SDGs를 적극적으로 연계

- 협동조합 섹터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개별적, 직접적으로 보상되지 않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협동조합 섹터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간접지원의 총량을 늘리는 근거
- 또한, 정책금융, 사회적금융 활용에 있어 보증, 대출 심사 기준으로 사회가치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협동조합의 성장전략에서도 중요

2) 한국 협동조합 섹터의 사회적 기여, 공헌을 통합적으로 가시화

- 협동조합 통계체계의 구축 (기본법, 개별법 협동조합을 통합적으로 인식)
-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내용, 체계를 발전시켜 협동조합의 임팩트 리포트 발간
- 협동조합에 대한 대국민 인식증진을 위한 공동활동 (기본법, 개별법 협동조합 협력)

3)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활로 개척에 기여하는 주요 제도정비 추진

협동조합의 정체성 강화 및 상호성 기준과 연계한 세제정비

- (일반)협동조합의 영리법인 성격에 대한 재검토
- 기본법 협동조합의 상호성 기준의 정립
- 기본법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상의 차별, 근거법령에 따른 편차 해소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범위 확대
- 신용협동조합의 타법인 출자 허용
- 연합회의 회원 범위 확대 : 연합회의 연합회 회원가입 허용
- 협동조합연합회가 시행하는 공제사업의 참여 범위 확대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주체, 협동조합의 활로를 여는 제도정비

- 세탁업 협동조합의 공동 세탁장 산업단지 내 설치 허용
-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택시산업 관계법령 정비
-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전환 및 규제 개선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완화 등)
- 의료서비스의 질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한 주치의 제도 시행,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의 본격화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 강화
- 중소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정책, 금융에 대한 접근성, 포용성 제고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한 제도정비

- 협동조합의 조합원 중 노동자(직원) 조합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상의 차별 해소 (협동조합의 상호성 기준 정비와 연계)

- 총회 의사록 인증의무 제외법인에 협동조합 포함
- 전자적 방식에 의한 협동조합 총회 허용
- 조직변경 시 취·등록세 부과이슈 및 전원 동의 요건의 완화
- 협동조합의 법정적립금에 대한 비과세 조치
- 협동조합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치
-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한 등록면허세의 면제 또는 대폭 감면

협동조합의 활로 개척에 기여하는 좋은 거버넌스 구축

- 협동조합의 활로를 여는데 중요한 과제 상시발굴 및 개선활동 추진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내실화 (상향식 의제발굴, 회의공개)
- 협동조합, 국회, 정부(진흥원)를 연계하는 삼각 협력체계 구축

4)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자조에 기반한 커먼즈, 공동의 기반을 조성

- 붕괴된 협동조합 지원체계의 대안으로 민간주도 (가칭)협동교육원 설립(부활)
- 협동조합(사회연대경제) 섹터의 연대와 협력, 혁신을 촉진할 플랫폼 구축

5) 협동조합인들의 자조와 협동으로 만들고 시민과 함께하는 협동조합 축제 개최

- (가칭)2025년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 한국 준비위원회 구성 및 준비
- 주요 사업 : 한국 협동조합 임팩트 리포트 발간 (향후 임팩트 리포트를 주기적으로 발간 하기 위한 기준점이 되도록 체계 구성) / 한국 협동조합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가시화 및 PR / 학술정책 포럼 / 한국 협동조합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공동의 캠페인 / 2025 세계 협동조합의 해 기념 축제

4. 사회적경제 생태계 _ 지역과 산업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척박한 기반 위에서, 그것도 서울이라는 익명의 도시에서 지난 10년간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80%가 참여하는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어온 것은 매우 경이로운 성과이자 사회적경제 섹터의 중요한 성취임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이 대체로 서로 만나고 교류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는 상황에서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는 그 자체로 다른 지역에 이정표가 되고 있음
- 10년의 축적과 성과를 참고할 수는 있으나 각자의 처지와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이식할 수는 없을 것임

- 각자의 지역에 필요한 일, 더 나은 지역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모색하면서 개별 기업의 활동과 사업을 넘어 공동의 목표, 공동의 사업, 공동의 기반을 만들어가는데 앞선 경험을 가진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안내자로서 동행해주면 좋겠음
- 한편, 지역의 다양한 조직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협력모델과 산업/업종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협력모델의 양 측면에서 생태계 전략을 지속해서 모색, 추구해야 함

5. 협동조합과 미래세대

- 협동조합 제5원칙은 특별히 협동조합의 가치확산, 협동조합의 변화, 혁신에 있어 미래세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협동조합에 대한 청년, 미래세대의 관심은 다른 기업 유형, 조직에 비해 매력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규모화된 협동조합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에게 협동조합의 가치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도 있음
- 학교협동조합은 청소년기부터 협동조합을 이용해본 경험,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해본 경험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입시, 진학에만 매몰되지 않고 협동조합, 토론합의조정 등 민주주의, 협동에 기반한 사업운영의 경험 등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음. 나아가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를 인식하고 체화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서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 지자체, 정부는 학교협동조합을 학교 교육에 있어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성가신 것으로 여기는 풍조도 만연하여 극복해야 할 문제임(행정적인 부담, 교사/학생/학부모의 참여 부담 등)
- 소극적인 교육당국, 학교의 현실이 일반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라면 여기에 더해 협동조합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진 지자체 의회 의원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지원조직 운영 중단을 주도하고 심지어 조례의 폐지를 엄포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 공동 대응이 필요함(서울)
- 이 문제는 학교협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협동조합이 돌보는 미래세대를 위해, 미래세대가 주인이 될 협동조합의 내일을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야 할 일
- 현재 협동조합 중 각급 학교를 근거로 하는 협동조합은 초중등 학교협동조합, 대학생협이 대표적이며 '레인서울'과 같은 (유립)학사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협동조합도 있음. 이들 협동조합 사이의 연계, 교류, 협력의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임(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목적사업, 공동사업, 연계사업 개발 / 협동조합 교육 및 청소년, 청년 창업동아리 지원 등)

6. 민주주의와 디지털 기술

- 정보의 공유, 자유로운 의견의 교환, 상호 존중에 기초한 의사소통은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 이는 협동조합 제5원칙에서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임
- 정보의 공개, 업무가 진행되는 상황의 공유, 기록의 축적과 암묵지의 공유는 조직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 역시 매우 중요함.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지식과 정보의 생산, 공유, 확산에 기여하고 조직 구성원의 참여와 조직 민주주의의 촉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적 기반임
- 생협 등 체계화된 협동조합은 상용 또는 자체 개발한 인트라넷을 모든 구성원의 업무와 정보, 지식 공유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인트라넷뿐 아니라 물류, 금융업무, 세무회계 업무가 통합된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일례) 아이쿱생협의 경우, 활동가, 임직원, 생산자가 참여하는 거대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보와 지식의 공유, 업무에 대한 의견교환, 의사결정, 아카이빙 등이 이뤄지고 있음. 참여 규모는 대략 1만명에 달하는 규모
- 반면 규모가 작은 협동조합의 경우는 조직운영, 업무관리에 있어 분절화된 프로그램 또는 상용그룹웨어,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임.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조직 민주주의의 역량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함
- 현재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디지털 기술 활용을 잘 하지 못하는 몇가지 이유를 가늠해보면 1) 필요한 서비스 이용 또는 개발에 드는 비용부담 2) 최적화된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부재 3) 조직 구성원의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4) 활용능력의 편차로 인한 문제 등이 대표적인 이유일 것으로 생각됨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서 그간 개발한 여러 시스템들(믹스온, 캠페인즈, 타운홀, 데이터X, 데이터트러스트, 시티즌패스 등)을 이미 여러 비영리조직,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이 홈페이지 구축,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캠페인 활동에 적용, 활용하고 있음.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홈페이지도 빠띠의 믹스온 서비스를 이용해 구축)

- 비영리, 사회적경제조직을 염두에 두고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 구축한 시스템, 플랫폼인 만큼 사회연대경제섹터의 관심을 기울이고 이용해야 지속적인 개선도 이뤄질 수 있을 것임. 또한, 이용자 스스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 구성원의 활용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함
- 아울러 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총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려고 하는데 협동조합의 온라인 총회와 사후 조치에 필요한 기능(정보공유, 토론, 인증, 투표, 공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연계되면 시너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함
- * 주의할 것은 총회 등 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되려 직접적인 대면과 깊이 있는 소통을 피하는 방편으로 쓰이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임. 규모가 커진 협동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대의원 총회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총회 운영의 어려움을 더는 효과는 있으나 조합원 전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 온라인 총회가 가능해지면 대면총회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모든 조합원의 참여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대의원 총회를 더욱 간소화하는 방편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될 것

7.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조직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 커뮤니티

-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의 성장전략으로서 협동과 연대는 늘 강조됐음. ‘실질로 작동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갈망도 계속되고 있음. 관성적인 기관 대 기관의 협약, MOU 등으로는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네트워크, 연대와 협력은 쉽지 않음을 그간 반복적으로 경험해왔음
-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의 사업(컨소시엄 등) : 장기적 관점에서 개별법 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들의 연대, 협력은 지속해서 발전시켜가야 할 전략적 과제
- 실질로 작동하는 네트워크, 연대와 협력의 촉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작은 협동과 연결의 경험을 통해 더 큰 연대의 가능성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소셜브릿지) 45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열린채팅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호작용을 우리는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자조에 기반한 커먼즈, 공동의 기반을 조성
 - 붕괴된 협동조합 지원체계의 대안으로 민간주도 (가칭)협동교육원 설립(부활)
 - 협동조합(사회연대경제) 섹터의 연대와 협력, 혁신을 촉진할 플랫폼 구축

토론

김선화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위원

제22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2025년 세계협동조합의 해, 협동조합에서 더불어 성장하기

2024. 7. 2.

김선화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위원
경영연구협동조합 이사장

두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가 갖는 의미

- 협동조합, 공정무역 연구자로서 공정무역 생산지를 조사하다 보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지역발전을 만들어낸 다양한 사례를 만날 수 있음
- 선진국, 저개발국 어디든 협동조합, 협동조합 유사 조직을 운영하여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례 다수 존재함
 - ✓ 저개발국에서 생산자 협동조합 결성, 생활 인프라 확대, 신협을 결성하며 지역 공동체 발전
- 제78차 유엔총회에서 2025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두번째 선포한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
 - ✓ 소득 증대, 비용절감, 양질의 자원 확보, 일자리 창출, 사회문제 해결
-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의 역할을 인지하고 확장하기를 기대함 (예, 한국 생협)

협동조합인들의 지역 사회 기여

- 경기도는 공정무역마을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경기도를 포함하여 31개 시군 중에 9개 시가 ‘한국공정무역마을 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로 인증을 받고 있음
- 공정무역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공정무역마을을 만들기를 원하는 단체와 개인들이 중심이 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함
- 이러한 협의회에 공정무역을 인식하고 소비하는 생협 활동가들과 지역 기반의 협동조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 공정무역마을운동은 지역을 이해하고 있는 지역 기반 활동가들이 접근 할 수 있음
 - ✓ 활동 과정에서 협동조합을 만든 사례도 있음



상호협력적 살림살이 경제를 만들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

-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모델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며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한 사례임
- 회원 조직들이 사업체라는 것을 주목 - 돌봄, 교육 등 회원 조직의 사업에 기반하여 사업 분과를 조성하고 공동 사업을 통한 상호 성장 체계 마련
- 민간 주도 - 기금, 공간, 사업 확장 등
- 회원 네트워크 사이에 상호 거래를 통해 사경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강화
- 연대 조직을 결성하고 다른 연대조직과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업을 획득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확보
-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회원사들의 시간과 비용 투입 감소, 사업적 역량 보완
- 다른 지역에서도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같은 모델을 만들고 싶어할 것 같은데, 이러한 네트워크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협동조합의 성장

- 규모화와 새로운 접근
 - ✓ 스위스 미그로, COOP 핀란드의 소비자 협동조합
 - ✓ 프랑스의 유기농 협동조합의 로컬 페어트레이 주도
 - ✓ 개별법 기반 협동조합과 기본법 기반 협동조합 협력 강화 필요
 - ✓ 더 다양한 영역과의 협력
- 사업 역량 강화
 - ✓ 기본법 기반 협동조합 평균 매출액 3억 7,470만원(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 5.17)
 - ✓ 기획재정부,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현장에서 보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10년 평가와 향후 과제>(2022.8)
 - ✓ 성장 단계별 역량 강화
 - ✓ 사업적 역량 강화나 성장의 요구가 충족될 때 연합회나 협의회 참여
- 관주도의 중간지원조직 → 민간주도의 지원조직(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 ✓ 사업에 중점을 둔 지원
 - ✓ 사업에 초점을 맞춘 연구
- 사회적 필요 부응 - 고령화, 주거 문제, 기후 위기 대응 등

감사합니다

토론

서재교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 소장

SDGs 확산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 소장 서재교

지난해 3월 정부는, 자생력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건실하게 발전하는 ‘성숙한 협동조합’, 정체성과 투명성으로 ‘공동체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을 지향하는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협동조합을 활용한 ‘공동체 문제해결’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서 도출한 세부 추진과제 가운데, SDGs와 연관성이 높은 세부 추진과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Goal 8,), ‘돌봄·의료 등 사회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Goal 3), ‘지자체 공공 위탁사업 확대’(Goal 4, Goal 15), ‘협동조합 연합회 기능·역량 강화’(Goal 9),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참여 주체 확대’(농·수협 등)(Goal 2, Goal 14)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적정가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공’(Goal 7), 주거 관련 협동조합을 통한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거주’(Goal 11)도 각각 햇빛발전협동조합, 주거 관련 협동조합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속한다.

공동체 문제해결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은 경제·사회적 소멸 위기에 놓인 공동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시장(市場) 기능 쇠퇴로 요원해진 민간 투자 기능을 복원하고, 복잡다단해진 공공서비스 수요에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체의 보편적 경제·사회적 이익을 지향하는 민간협력 파트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 주도로 협동조합을 활용하여 공동체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예컨대, 산림청은 지난 2019년부터 소멸 위기에 놓인 산촌 공동체 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Goal 8),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국유림 관리와 보호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Goal 15) 국유림 관리의 위탁 주체인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국내 산림의 25%에 달하는 국유림을 관리하는 국유림영림단 130여 개 가운데 약 70%가 개인사업자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마쳤다.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아동 돌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Goal 4). 2024년 5월 말 기준, 지역아동센터 780여 곳, 다함께돌봄센터 126곳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공동체 문제해결을 해결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활동이 정부 지원에 따른 시혜적 사업에 그치지 않으려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협동조합 생태계 전반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가치’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된 사회적경제 생태계 전반의 차별화된 역량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8개 개별법 협동조합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과 협업을 도모하여 역량을 모아가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기본법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과 협업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협동조합 협업화 지원사업’은 협업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 모델이다.

개별법 협동조합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광역·기초 지자체

구분	내용
광역지자체	경기도, 대전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기초지자체	경기도 의왕시, 대전광역시 서구,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라남도 신안군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별 수요를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지자체별 사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차원의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다. ‘건강권 보장’(Goal 3), ‘교육 만족도 및 평생학습 기회 충분도’(Goal 3),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Goal 1, Goal 8, Goal 10), ‘환경 체감도’(Goal 6, Goal 13, Goal 14, Goal 15), ‘주거 환경 만족도’(Goal 11)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역 수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협동조합 사업 계획을 마련 및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소멸 위기에 놓인 비수도권 지역은 물론이고, 효율을 바탕으로 성장 기반이 우수한 수도권 지역도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지역과 공동체가 요구하는 협동조합의 역할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제안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시도별 SDGs 관련 사회조사 결과

행정구역별	건강권 보장			공교육 만족도	일자리 기회 충분도	생계유지 어려움	환경 체감도			주거 환경 만족도 (시설, 면적, 구조 등)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의사 수	의료서비스 만족도	미충족 의료율				대기	수질	토양	
부산광역시	3.7	68.9	5.6	37.6	9.3	44	37.4	33	32.4	55.2
대구광역시	3.8	58.4	4.9	33.6	6.8	44.7	36.9	37	31.4	42.3
인천광역시	2.7	55.3	7.2	50.7	18.9	31.5	32.1	42.1	40.6	60.5
광주광역시	3.9	61.3	6.1	31.7	13	40.3	35.4	39	36	47.5
대전광역시	3.8	69.9	4.3	45.9	21.9	18.8	29	37.2	35.5	53.1
울산광역시	2.5	57.8	7.2	20.3	8.7	35.3	16	17.9	18.5	40.9
세종특별자치시	2.1	59.4	7.0	41	8	30.5	38	38.5	37.9	61.1
경기도	2.7	56.0	5.9	25.9	11.8	39.6	49.1	47.7	46	53
강원특별자치도	2.7	66.0	7.4	23.2	11.7	38.9	56	53.6	46.3	54
충청북도	2.4	61.9	8.4	30.6	17.6	35	33.8	33.4	29.8	35.9
충청남도	2.4	56.0	6.6	28.8	18.4	36.9	28	34.7	34.6	51.9
전라북도	3.2	64.4	7.8	34	13.5	34.9	36.8	47.5	43.2	58.1
전라남도	2.6	67.4	5.4	26.6	18.2	46.4	40.1	41.6	37.5	46.1
경상북도	2.2	62.8	6.5	28.5	12.7	41	45.7	44.9	42	46.7
경상남도	2.6	63.6	9.3	26.3	10.8	47.5	30.7	32	31	50.2
제주특별자치도	2.7	60.4	4.3	44.7	14.4	35.9	57.8	58.8	49.3	55.4

토론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새로운 사회질서를 꿈꾸며 자신을 완성해 나가기로 갈망하는 나를 위하여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안인숙

1. 왜 다시 협동조합, 왜 다시 협동과 연대?

-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인식 확산과 촉진 정책 요구
- 전통적 협동조합 규범화된 협동, 공동의 의제를 향한 열린 연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
- 행정과 시장은 개인 삶을 영위하는 체계 중의 하나. 행정에서는 통제로 존재하고, 시장에서는 노동자와 소비자로 존재
- 통계가 아닌 풍요로운 삶의 영역을 바로 보고, 통치와 돈벌이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한 사회 구성물이 필요

2.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조합, i) 결사의 목적에 근거하여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 영위, ii) 사업에 있어 재무적 관점 이외 학습과 성장관점에서, 정보공개, 민주적 운영, 조합원 역량 강화, 지역사회 관여, 협동조합간 협동 다룰 수 있어
- 조합원, i) 결사의 목적에 근거하여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에 참여, ii) 자신의 필요와 열망에 대한 인식, 협력하려는 마음과 의지, 학습과 성장의 의지

3. 참여와 운영에 있어 기술적 문제

- 규범적, 제도적 문제 : 토론과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 함께 결정한 것에 책임지는 규약과 규율
- 기술적 문제 : 시간 비용, 소통의 방법/도구,
- 디지털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 시간 비용 절감. 소통과 결정의 경로 파악하여 책임성 강화
실행을 통해 보완되는 과정 파악하여 협동조직 능력 강화
- 기술은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서 효율성에 더하여 효과성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함

4. 조합원 역할을 하게 하는 교육, 현장의 역동성을 만드는 교육

- 자신의 필요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결사의 목적과 방법론의 필요성을 내재화하는 내용
- 사업을 이용하는 책임, 인적 결사의 소중함에 근거한 상호성 증진하는 훈련
- 인간이 되는 교육, 전인적인 만남과 우애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기

5. 사업연대를 가능케 하는 조건들

- 연대의 범위 : 노동연대, 자본연대, 생활의 협동(경제적, 일상적, 정서적)
- 연대의 구조 : 지역 기반 연결망 구성
- 초월적 목표 : 참여자의 필요를 해결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네트워크 자체의 힘으로 '공동'이 강화되는, 사회적자본 형성하는 데로 나아가기

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과제

- SDGs, K-SDGs에 비례하여,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가지고 조직의 성과지표를 설정해 보면, 협동조합의 유의미성이 잘 드러날 것으로 기대함.
- 협동조합의 성과 입증, 외부 객관적 기준에 대응하는 부문과 협동조합 고유 지표 개발 필요.
- 플랫폼 참여하는 거버넌스 미약
- 커뮤니티 기반 연합체(네트워크), 업종 연합회의 지원 역할 강화하여 중복 투자, 일회성 투자 등을 없애고, 자원과 일자리가 순환되는 사업 구조 만들어야

토론

김홍길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 과장

1. 행정 관점에서의 SDGs

- UN - 국가 - 광역 - 지방정부로 연결되는 수립 프로세스를 고려할 필요
-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2015년부터 형성되어 17대 목표, 68개 세부목표, 138개 지표를 구성하여 평가해 오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는 경기도 시·군 공통지표 평가도 포함되어 있음.
- 특히 17대 목표 가운데 8.3 목표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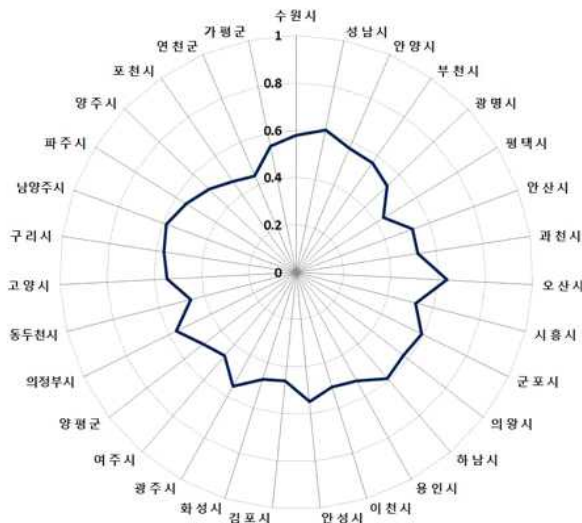
목표 8 :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목표	세부목표	지표
8.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8.1 고용 안정과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	8.1.1 비정규직 비중
		8.1.2 산업재해율
	8.2 공평한 고용 기회 제공	8.2.1 고용률
		8.2.2 청년실업률
		8.2.3 장애인 고용률
	8.3 사회적 경제 활성화	8.3.1 사회적 경제 기업 수
		8.3.2 사회적 경제 종사자 수
	8.4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8.4.1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8.4.2 대기업-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협약 체결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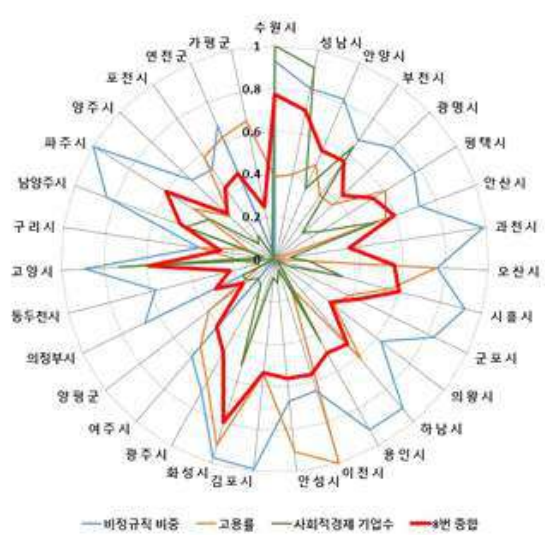
〈그림 1〉 사회적경제 관련 경기도 SDGs 목표

- 8번 목표 외에도 사회보장(돌봄서비스), 안전한 먹거리(로컬푸드),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자립(재생에너지), 산업의 회복탄력성(친환경녹색산업) 등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활동과 연결된 다양한 세부목표들이 존재
- 또한, 위 내용과 관련한 시·군 공통지표를 평가하여 종합지수 및 목표별 지수에 대한 결과를 공개함

[시군 지속가능발전목표 종합 지수]



[목표 8]



<그림 2> 경기도 시군 공통지표 평가결과

2. 경기도 협동조합의 현재와 공공시장에서의 가능성

○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협동조합이 폐업 및 휴면 등의 어려운 과정을 겪었으나 2020년 대비 경기도의 협동조합의 수와 운영률은 29.4%, 9.1% 상승한 상황임.

<표2> '21년 기재부 실태조사 vs '23년 도 운영 현황조사

(단위 : 개, %)

구분	'21년 기재부 실태조사(A)					'23년 (서울·경기) 운영현황 조사(B)					B-A		비고 ('23년 운영률)
	신고·인가	설립등기	완료 등기율	운영추정 운영률	신고·인가	설립등기 등기율	완료 등기율	운영추정 운영률	등기율	운영률			
전국	19,429	18,037	92.8	8,926	49.5	-	-	-	-	-	-	-	경기-서울
서울	4,420	4,031	91.2	1,955	48.5	5,042	3,082	61.1	2,034	68.0	△30.1	19.5	
경기	3,550	3,287	92.6	1,647	50.1	4,592	4,248	92.5	2,516	59.2	△0.1	9.1	△8.8

<그림 3> 협동조합 운영현황 조사 비교표

○ 협동조합의 경우 설립은 용이하나 설립 이후 운영 및 폐업 등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정보가 고르게 제공되고, 관련 대응이 생태계 안에서 활성화되고 있는지는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할 과제임. 이에 경기도는 휴면 협동조합에 대한 활성화 유도과 함께 내실 있는 운영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강구 중임.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기 바람.

-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의 수가(4,116개, 2022년 기준) 사회적기업 수(3,698개, 2024년 기준)를 넘어설 정도로 증가하고 있음. 부처별 현황과 관련해서는 복지부(1,621개, 39.4%) > 교육부(590개, 14.3%) > 고용노동부(332개, 8.1%) > 문화관광부(326개, 7.9%) 순임.
- 또한, 2023년 공공구매와 관련해 경기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우선구매 실적은 1,000억 규모임. 조달계약(물품, 용역) 외에도 민간위탁, 민간이전(ex. 바우처)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발제 중 하나인 광진구 사회적경제 생태계와 관련해 공공구매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가 2022년 314억원 규모의 매출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음. 시립 노인전문요양원 2곳, 구립 어린이집 2곳, 돌봄센터 2곳, 아동심리발달지원센터 등으로 지자체의 민간이전 사무들을 수탁하여 지역 내 일자리창출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경기도도 광진의 경험을 좋은 벤치마킹 사례 중 하나로 인지하고 있음.
- 향후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구매시장 진출은 늘어날 것으로 보임. 실제로 2023년 경기도에서도 조달계약으로만 50억원을 넘긴 사회적경제조직이 23개인데 여기에는 사회적협동조합들도 포함되어 있음. 여기에 민간위탁, 민간보조금 사업실적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 또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돌봄 정책 중 하나인 ‘누구나 돌봄1)’과 관련해 35개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12개 시군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 협력기관으로 활동 중임. 향후 경기도는 공공시장 특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돌봄, 방과후교육 등에서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사회적경제를 육성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1) 위기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임.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서비스, 식사지원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재활돌봄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등 7개 서비스를 시군 분야별 인증 협력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